



6차 장로아카데미

· 2019년 2월 26일 - 5월 21일 ·



1. 장로아카데미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장로의 영적 성숙과 리더십 개발을 돕는 학습공동체입니다.

2. 비전

예수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로

3. 목표

- 작은 예수 같은 장로, 예수를 바로 보여 주는 장로를 세운다.
- 교회와 국가를 섬기는 장로의 리더십을 훈련한다.
- 비전과 사역을 공유하는 친교 공동체를 형성한다.

4. 조직

홍성호 장로(대표) 정운섭 장로(팀장) 김명현 장로(총무)
민문기 장로 유재홍 장로 권오습 장로 이경훈 장로
김경렬 간사 최지완 간사

5. 학사운영방침

- 교육 수료의 기준에 합한 장로님께서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 초기에는 온누리교회 장로님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교육과정이나 추후 외부 교회 장로님들을 포함하는 공개강좌로 발전시켜가도록 한다.

6. 학습방법

성인학습방법론에 기초한 자기주도형 학습을 지향한다.

(1) 강의 자료 공유

-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인터넷, 모바일 모두 가능)에 “장로아카데미 커뮤니티”를 만들고 기간 중에 강의 자료, 토의 자료, 성경 구절, 참고 도서 등을 공유한다.
- 강의 내용은 동영상으로 녹화한 후 커뮤니티에 올려 공유한다.
- 강의를 돕는 핵심 성경 구절들을 올려서 나눔의 장으로 활용한다.
- 초청 강사가 안내하는 강의 자료나 참고 도서는 커뮤니티에 올려서 미리 예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토론 및 조별 발표

- 전체 참석자는 조별로 나누고, 각 조에 조장과 총무를 임명하여 섬기도록 한다.
- 강의가 끝나면 모든 조가 조별로 주어진 토의 내용에 대해 각자 토의를 하되, 사전 지정된 조는 당일, 토론 결과를 취합하여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주도한다.
- 당일의 토론 내용과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하여 커뮤니티에 올린다.

(3) 친교

- 장로 아카데미 기간 중 참가 장로님들 간에 서로를 알아가는 것도 하나의 과정 목표로 삼고, 서로 중보 기도하며, 교제한다.



7. 교육과정

- 일 시 : 2019년 2월 26일 - 5월 21일, 매주 화요일 오후 7:00-9:00
- 장 소 : 서빙고 순형홀
- 구 성 : 12강좌 (각 2시간), 영성수련회(1일)

커리큘럼

영역	주제
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누리교회 비전과 목회철학 · 교회론 및 교회사 · 수료예배 및 수료식 / 감사와 친교
개인영성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로의 영성과 리더십 (장로의 역할과 책임 및 행동) · 관계와 소통 · 일상생활의 신학과 영성
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s29와 온누리 선교 · 사회선교와 긍휼사역 · 가정과 장로의 역할
국가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ts29와 온누리 선교 · 사회선교와 긍휼사역 · 가정과 장로의 역할

8. 영성수련회

- 일시: 2019년 3월 9일 토요일
- 장소: Acts29 비전빌리지

9. 수강 대상 및 자격

- 대상 장로님에는 사역장로 시무장로, 명예장로, 협동장로를 포함한다.
- 한 회(기)의 훈련인원은 아카데미의 지속성과 교육효과를 고려하여 적정 인원으로 한다.
- 선정기준 : 장립연도와 연령을 고려하여 실행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 연령이 많으신 장로님은 순서에 관계없이 본인의 참여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6차 장로아카데미

10. 강의일정 ※ 영성수련회는 필히 참석하셔야 합니다.

	일 자	과 목	강 사	분 야
1	2/26(화)	개강예배 : 온누리교회 비전과 목회 철학	이재훈 목사	교 회
	3/9(토)	영성수련회(양지 비전빌리지) : 성령 · 기도 · 말씀 · 친교		
2	3/12(화)	Acts29와 온누리선교	박종길 목사 손정훈 목사	교 회
3	3/19(화)	관계와 소통	이의용 교수	리더십
4	3/26(화)	일상생활의 신학과 영성	방선기 목사	교 회
5	4/2(화)	바람직한 가정과 장로	김성묵 장로	국가·사회
6	4/9(화)	장로의 영성과 리더십	이장로 교수	리더십
7	4/16(화)	다음세대의 이해와 교회	최셋별 교수	국가·사회
8	4/23(화)	과학기술과 사회의 변화	이재규 교수	국가·사회
9	4/30(화)	한국교회사와 장로교회	임희국 교수	교 회
10	5/7(화)	사회선교와 공흥사역	노규석 목사	사 역
11	5/14(화)	고령사회와 시니어사역	노치형 목사	사 역
12	5/21(화)	수료예배 및 수료식 / 감사와 친교	이재훈 목사	교 회



11. 영성수련회 일정표

주제 :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장소 : 양지 비전빌리지

시 간	내 용	담 당
08:30	서빙고 온누리교회 출발	유재홍 장로
08:50	양재 탑승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163 스마트 스크린 시연장앞 승차	권오습 장로
08:50-10:00	양지 비전빌리지로 이동	
10:00-10:10	등 록	이경훈 장로
10:10-10:25	찬 양	유재홍 장로
10:25-10:30	기 도	
10:30-11:20	말 씬	김지철 목사
11:20-11:50	질의응답	
11:50-12:00	휴 식	
12:00-12:30	성경 통독	전구영 장로
12:30-13:40	조별 식사 및 교제	조장
13:40-13:50	찬 양	유재홍 장로
13:50-14:30	장로의 자기 성찰과 교제	홍성호 장로
14:30-14:40	조별 구호 제창	정운섭 장로
14:40-14:50	휴 식	
14:50-15:00	찬 양	유재홍 장로
15:00-15:40	영상시청·중보기도 박승철(故)·김혜정, 조성록(故)·유은필, 김광선, 이병현	
15:40-15:50	장로 기도문 소개	김명현 장로
15:50-15:55	폐회사	홍성호 장로
15:55-16:20	하목사님 기념관 방문 (추모사/기도)	
16:20-16:30	귀가 준비	
16:30-17:40	버스 이동	
17:40	양재역 중간 하차	
18:00	서빙고 온누리교회 도착	

장로의 기도

예수님 바로 보여주는 장로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홀로 있을 때 더욱 그러하게 하소서
스스로의 맹세로는 그리 못하오니
성령님께서 영과 혼과 육신의 모든 세포를 온전히 채우시어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만 보여 지게 하소서

예수님 보여 줄 수 있는 모습 내 안에 없으면
성령님이 충만해 질 때까지 말하지 말게 하시고
감정의 충동으로 행동하지도 말게 하시며
성령님이 온전히 채우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소망으로
교회의 소명을 우리 삶의 꽃대로 삼아
끝까지 주님 따라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소서

선한 행동도 교만의 원인이 되고
성령 충만 조차 교만의 원인이 되는
도저히 구제 불가능한 존재이오니
보혈의 피로 매일 씻어 시험에 들지 않게 불드소서

다스림의 사명을 맡은 자에게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베풀고도 실망하고 분노하는
단지 울리는 팽과리가 될 뿐이오니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 가는 사랑의 장로 되게 하소서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박종길 목사

온누리교회 부목사



손정훈 목사

온누리교회 부목사



이의용 교수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문학박사
생활 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방선기 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은혜와영광교회 담임
E·LAND 사목 / 직장사역연합 대표



김성묵 장로

온누리교회 장로
가정사역자
사)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이사장

6차 장로아카데미



이장로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기독교경영연구원장, 한반도평화연구원장
現 한국리더십학교장, 장로회신학대학교 겸임교수



최색별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사회학회 총무위원장
전국여교수연합회 이사



이재규 교수

연세대학교 석좌교수(KAIST 명예교수)
세계정보시스템학회(AIS) 회장 역임
연세대학교 및 KAIST 밝은인터넷 연구센터장



임희국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교회사)
동신교회(서울동노회) 교육지도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장통합)총회 역사위원회 및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전문위원



노규석 목사

온누리교회 부목사



노치형 목사

온누리교회 부목사





6차 장로아카데미

- 온누리교회 비전과 목회 철학 | 이재훈 목사 | 012p
- 영성수련회(양지 비전빌리지) : 성령·기도·말씀·친교 | 016p
- Acts29와 온누리선교 | 박종길목사 · 손정훈 목사 | 020p
- 관계와 소통 | 이의용 교수 | 034p
- 일상생활의 신학과 영성 | 방선기 목사 | 044p
- 바람직한 가정과 장로 | 김성묵 장로 | 048p
- 장로의 영성과 리더십 | 이장로 교수 | 052p
- 다음세대의 이해와 교회 | 최셋별 교수 | 076p
- 과학기술과 사회의 변화 | 이재규 교수 | 082p
- 한국교회사와 장로 교회 | 임희국 교수 | 098p
- 사회선교와 긍휼사역 | 노규석 목사 | 108p
- 고령사회와 시니어 사역 | 노치형 목사 | 126p
- 수료예배 및 수료식 | 이재훈 목사 | 134p



온누리교회 비전과 목회철학

강사 : 이재훈 목사

마태복음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Onnuri 6차 장로아카데미

영성수련회:성령·기도·말씀·친교

- 양지 비전빌리지 -









Acts29와 온누리선교(1)

강사 : 박종길 목사

선교적 사명 | 마태복음 28:18-20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름다운 선교 | 로마서 10:13-15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서론

본론

1. 온누리교회 비전

(1) 5대 목표

- ① 성경 중심의 교회
- ② 복음 중심의 교회
- ③ 선교 중심의 교회
- ④ 공활을 베푸는 교회
- ⑤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

(2) 2,000/10,000

(3) Acts29

(4) 예수 바보 행전

2. 온누리 교회의 목회철학

(1) 이상적인 교회의 특징

- ①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교회
- ②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교회
- ③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

(2) 온누리 교회 공동체의 특징

- ① 예배 공동체
- ② 성령 공동체
- ③ 선교 공동체

3. Acts29

(1) 국내 캠퍼스(10)

서빙고, 양재, 부천, 수원, 대전, 남양주, 평택, 인천, 강동, 양지

(2) 해외 비전교회(30)

얼바인, 로스엔젤레스, 샌디에이고, 산타모니카, 광, 보스턴, 네이퍼빌 시카고,
노스 시카고, 뉴욕 IN2, 뉴저지, 포틀랜드, 앵커리지, 밴쿠버, 시드니, 오클랜드,
동경, 오사카, 우에다, 요코하마, 야치요, 나고야, 교토,
아부다비, 베트남, 북경, 단둥, 대련, 상해, 장춘, 청도

4. 예수바보행전

(1) 예수바보가 누구인가?

- ① 예수님을 바로 보는 사람들이다.
- ②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로 보살피는 사람들이다.
- ③ 예수를 세상에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2) 위험한 교회

- ① 거룩한 절박함이 있는 교회이다.
- ② 선교적 사명감이 살아있는 교회이다.
- ③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이다.

(3) 낮아진 교회

- ① 예수님을 바라보는(unto christ) 교회가 되어야 한다.
- ② 예수님을 위한(for christ) 교회가 되어야 한다.
- ③ 예수님 같은(like christ) 교회가 되어야 한다.

(4) 연약한 교회

- ① 역경(adversity)이 변해 장점(advantage)이 되는 교회이다.
- ② 깨어짐(brokenness)이 변해 아름다움(beauty)이 되는 교회이다.
- ③ 위기(crisis)를 기회(chance)로 만드는 교회,
혼돈(chaos)을 창조성(creativity)으로 만드는 교회다.

결론





Acts29와 온누리선교(2)

강사 : 손정훈 목사

선교적 사명 | 마태복음 28:18-20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름다운 선교 | 로마서 10:13-15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선교의 기초위에 세워진 온누리 교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모든 종족에게 교회를
(마28:19-20)

1985년 10월 6일 창립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2000/1만 비전” “ACTS 29 비전”

선교역사(1)

▶ 태동기(1984-1985)

- ✦ ‘연예인 교회’ 사임
- ✦ 영국에서 선교사 훈련 :WEC, 런던 Bible Collage
- ✦ 12가정 훈련
- ✦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시작: 이재환(Gambia),
변재창(Japan) 선교사 등 후원 협력
- ✦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준비
- ✦ ‘선교 공동체’ 선포

선교역사(2)

▶ 개척기(1985-1993)

- ✦ 78명의 성도로 창립예배(85.10.06)
- ✦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 ✦ 전교인 낙도 Outreach 시작('85,'86)
- ✦ '해외 선교헌금'작정 시작('86)
- ✦ 두란노 해외 선교회-TIM-창립('87)
- ✦ 한남동 기도 모임 시작('88)

선교역사(3)

▶ 성장기(1994-2001)

- ✦ 2000/10000 비전 선포
- ✦ 성령운동 시작('94)
- ✦ "7년 된 교인은 다 떠나라."('94)
- ✦ Onnuri Mission(외국인 근로자)사역 시작('95)
- ✦ 이천만 훈련원 개원. 선교사 훈련(MTS) 시작('95)
- ✦ 15개 미전도 종족 입양 ('96-'99)
- ✦ 박승철 선교사 순교('00)

선 교 역 사(4)

▶ 성숙기(2002-2007)

- ⊕ Onnuri 세계 선교 센터 개원(OWMC)
: 선교사 동원 및 훈련(2002)
- ⊕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교회 개척(2003)
- ⊕ CGN TV 위성 방송 시작(2005)
- ⊕ 안산M-Center 시작(2006)
- ⊕ 비전교회 시작과 Net -Work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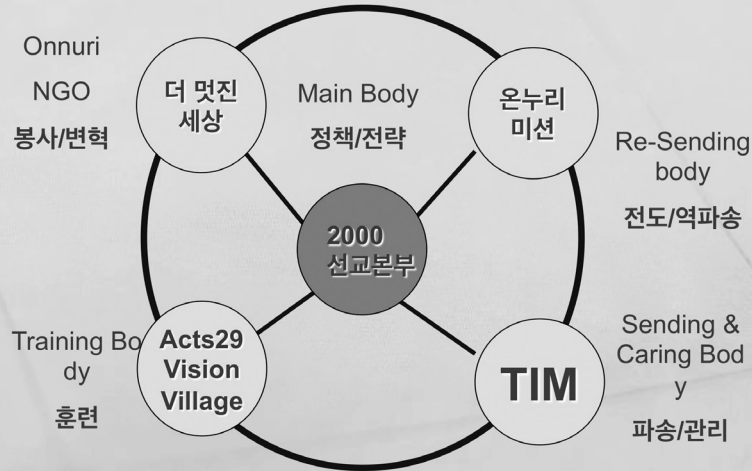
선 교 역 사(5)

▶ 확장기(2008 이후)

- ⊕ 현재 사역중인 선교사 896명 / 총 파송 2,026명
- ⊕ 비전 교회 별 선교사 파송
- ⊕ 'LOVE SONATA' : 일본, 대만
- ⊕ 2000명 파송 2000개 교회 개척
- ⊕ 융합선교 (2015년 ~)

선교 현황

온누리교회 주요 선교 기관



선교사 현황

전체 896여명

단기선교사
8% (73명)

장기선교사
92% (823명)

선교사구분

■ 평신도 ■ 목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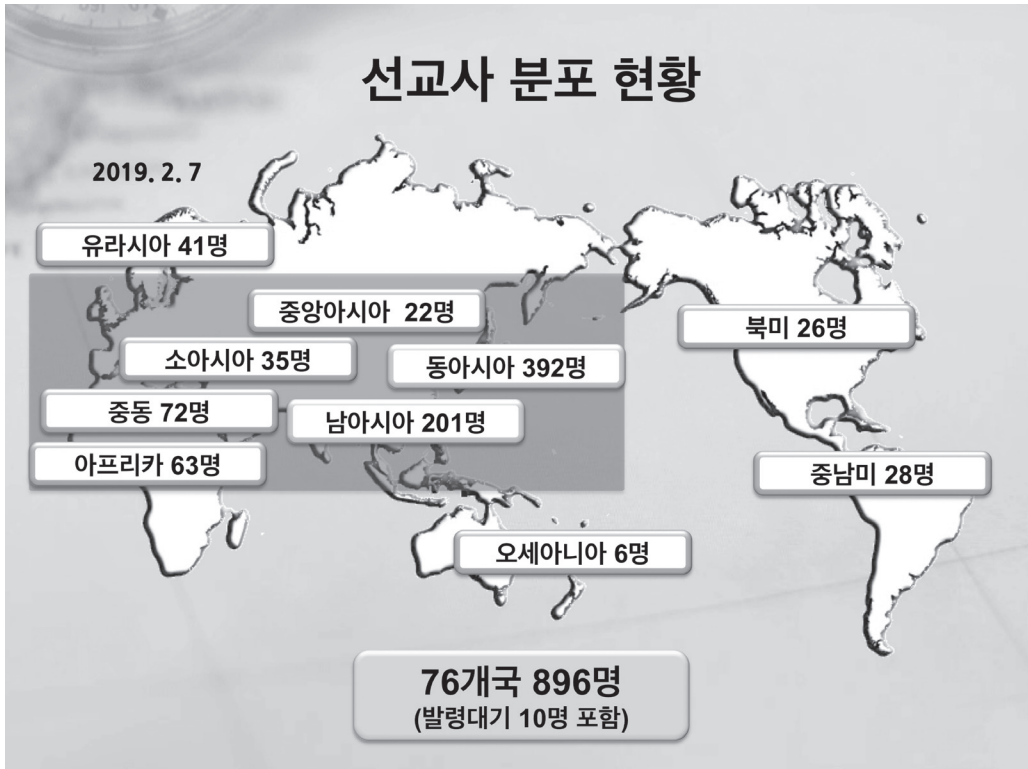
15%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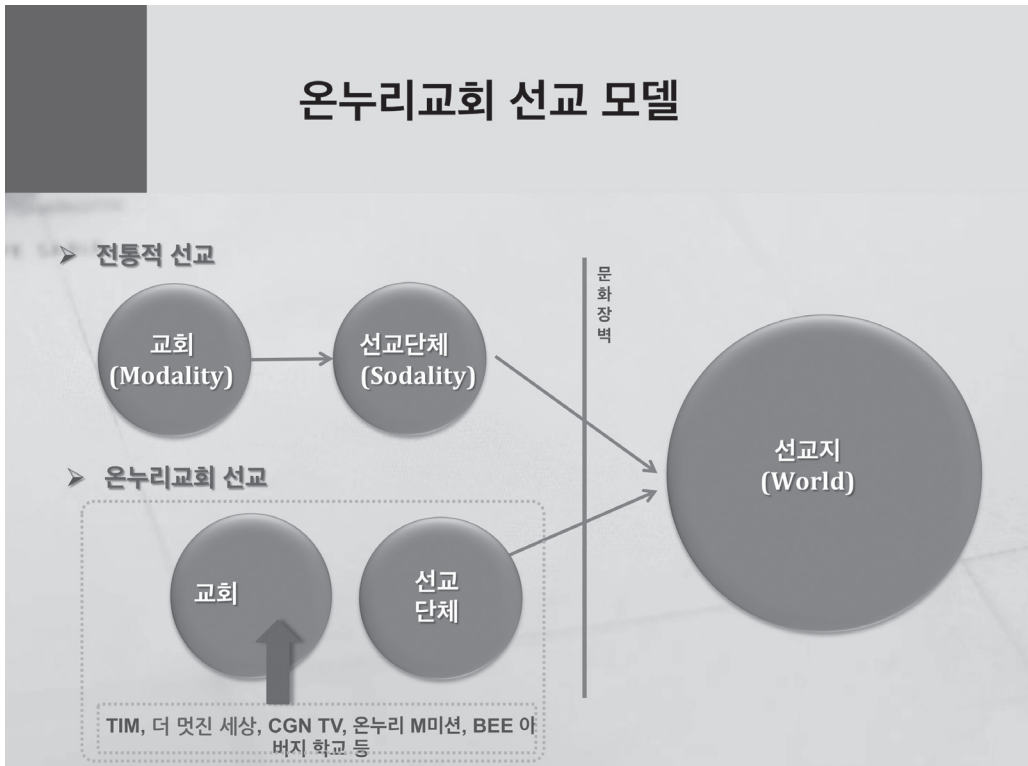
파송 누계 : 2,026명



선교사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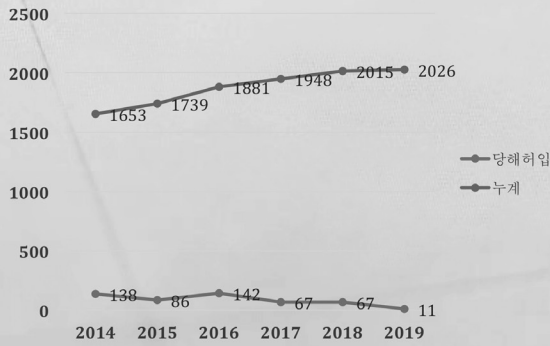


온누리교회 선교 모델



온누리 선교사 파송 추이 및 현황

VISION2000 : 2000명 선교사 파송
(현 896명, 누적 2026명)



온누리성도 37명 당 선교사 1명 파송
(성도 7만 명 기준)

선교헌금작정액: 122억

2017년 해외 아웃리치 4,214명

온누리교회 자원 분석 및 선교지역 분석

➤ 온누리교회 자원 : OK!



➤ 온누리교회 선교지역 : OK ?



[이슈]

1.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선교현장
2. 사역평가의 필요
3. 사전계획에 의한 선교사 파송
4. 선교사 케어 / 현장 사역조직 강화
5. 현장 선교사의 사역 전문성

온누리선교 2기 방향



“개별적 선교를 넘어 팀단위 선교로”

1. 융합선교

전선교 채널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2. 계획적 선교사 파송

종족별/지역별 중장기 선교계획에
따른 선교사 파송

융합선교의 정의

❖ 융합선교(Convergence Mission)

각 교회와 선교단체, 선교사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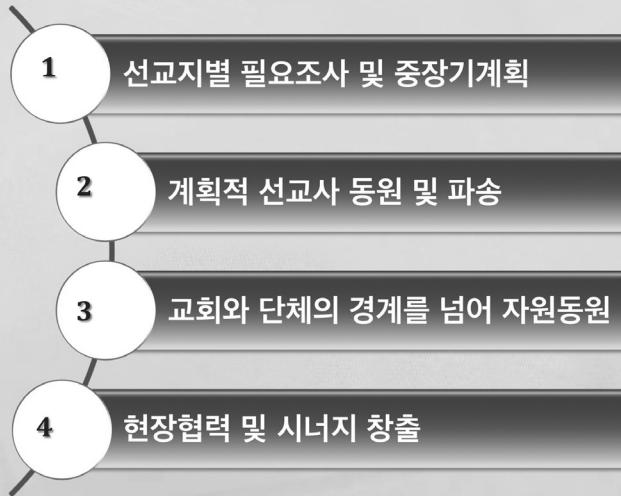
서로의 경계를 넘어

선교지의 필요와 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서로의 자원을 집중함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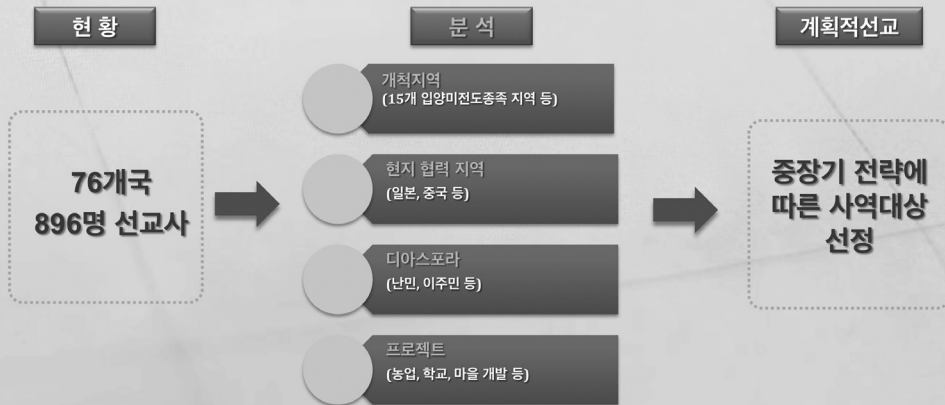
계획적 선교 / 팀 단위 선교 / 협력 선교

융합선교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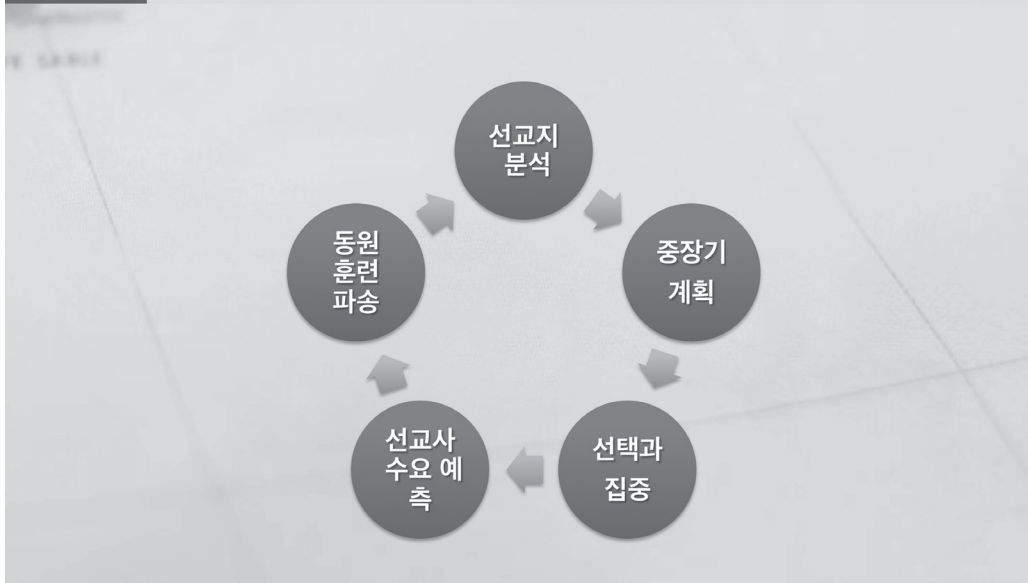


새 방향에 따른 선교지 분석

선교연구소, 외부 리서치 기관, 지역 리더 등 활용



중장기 계획에 따른 계획적 선교사 파송



융합선교 결과





관계와 소통 - "말이 통하는 어른"

강사 : 이의용 교수

사랑으로 | 요한 1서 4: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겸손으로 | 빌립보서 2: 3-4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1. 장로의 사명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 12절)

2. 토의-장로에게 필요한 역량은?

- (1)
- (2)
- (3)
- (4)

3. '동굴'에서 '광장'으로

- (1) 동굴에서 혼자 살다 광장으로 나와 불편해지는 것

(2) 동굴에서 혼자 살다가 광장으로 나와 편리해지는 것

4. '다름'과 '차이'

- (1)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_____ 것이 아니다.
- (2)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_____ 을 읽는 데서 시작된다.
- (3) 다른 사람에게는 나도 _____ 이다.

5. 체력적으로는 열등한 인간이 생물체를 지배하는 힘은?

6. “사람의 행복 90%는 ()에 달려 있다.”- 키에르케고르

- (1) 장거리 여행 빨리 가는 법
- (2) 식사 맛있게 하는 방법
- (3) 85%가 () 잘못해서 실패
- (4) 85%가 () 잘 해서 성공
- (5) 85%가 (), ()으로 성공
- (6) “친구는 수천 명도 부족하다. 그러나 ()은 한 명도 많다.”-알 카포네

7. 평소 나와 가장 자주 소통하는 사람 10명은?

8. 내가 앞으로 소통을 더 자주 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 5명은?

※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들과 _____ 관계를 맺느냐는 것은 내 선택이다.

※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_____, _____, _____를 읽는 데서 시작된다.

9. 소통과 갈등

(1) 갈등(葛藤): 침덩굴과 등나무 덩굴이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견해·주장·이해관계 따위가 서로 달라 적대시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

(2) 가정이든 교회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상 갈등은 불가피하다.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그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다.

'通卽不痛(통즉불통), 不通卽痛(불통즉통)'

10. 교회와 갈등

(1) 교회 공동체 내부의 갈등

- ① 목사 vs 장로
- ② 장로 vs 장로
- ③ 당회 vs 교인
- ④ 교인 vs 교인
- ⑤ 세대 vs 세대
- ⑥ 담임목사 vs 부교역자
- ⑦ 교회 vs 간사(교회 직원)
- ⑧

(2) 교회와 공동체 외부와의 갈등

- ① 교회와 지역사회간의 갈등

- ② 교회와 사회의 갈등

- ③ 교회를 향한 사회의 불신

11. 갈등 해결, 소통의 방법

(1) 직면(直面) 소통

- ① 상대방을 직접 대한다. 제3자를 통한 간접 소통, 추측을 지양한다.
- ② 상대방이 알고 있는 사실(fact)과 원하는 것(needs)을 정확히 파악한다.
- ③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해결해나간다.

Communication Sheet		
From	To	말이 통하는 교회를 위해 이렇게 해주세요
담임목사	장로들	
장로들	담임목사	
	다른 장로들	

(2) 소통의 연습-말하기와 경청하기

- ① 친절하게 말하기
 - “반갑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했습니다”
- ② 말하는 순간 듣지 못한다.
 - 輕聽 < 傾聽 < 敬聽
- ③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_____
 - 공감(Repeat)
 - 주장(“제 생각에는....”)
 - 인정(“일리가 있습니다”)
 - 거절(“Yes, But...”)
 - 충고, 부탁(Sandwich)
 - 요구(Fact-I-Want)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잠언 15:23)

(3) 교회내 소통을 위한 방법

- ① 신속한 정보 공유
- ② 교회내 미디어 운영
- ③ 교회내 토론 문화 활성화
- ④ 회의법 혁신(수렴형, 확산형 구분)
- ⑤ 사서함 운영
- ⑥ 권한 위임
- ⑦ 청년 당회 운영
- ⑧ 나의 5분간(교회에 바란다)
- ⑨ 투명한 재정 사용(외부 감사)
- ⑩

(4) 평화로운 당회 운영법

- ① 내가 아닌 하나님과 교인의 입장에서 결정한다.
- ② 발언을 독점하지 않는다.
- ③ 1시간 내에 끝낸다. (끝나는 시각 알람)
- ④ 토론은 활발하게, 그러나 일단 결정되면 견해가 달라도 적극 협력한다.
- ⑤ 토론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 ⑥ 결정 사항은 24시간내에 전 교회에 공개한다.
- ⑦

(5)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 ① 설문조사
- ② 마을 신문 발간, 지역 인터넷 방송 운영
- ③ “주민에게 듣는다”, “교회에 바란다”
- ④

“My life is my message.”- 간디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에는 한 시간이면 족하다. 그러나 기독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데에는 평생이 걸린다.”-버클레이

[참고자료]

소통의 법칙

1.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은 가장 나쁘다. 궁시렁거리지 마라.
2.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편이 많아진다.
3.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흥분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4.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하라.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는 말을 하라.
5.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하기 쉬운 말보다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라.
6.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허물은 덮고 칭찬은 자주 해라.
7. ‘뻘’한 이야기 보다 ‘편’한 이야기를 해라. 디즈니만큼 재미있게 해라.
8. ‘혀’로만 말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해라. 비언어적 요소가 언어적 요소보다 힘이 있다.
9.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 된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10.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 뱉어진 ‘말’이 나를 다스린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은 책임을 져라.

‘아재’(꼰대) 체크리스트

1. 사람을 만나면 먼저 나이부터 확인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서는 반말을 한다. □
2. 대체로 명령문으로 말한다. □
3. ‘요즘 젊은이들이 노력하기보다 세상 타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
4. “○○란 ○○인 거야”라는 식의 진리명제를 자주 구사한다. □
5. 버스, 지하철의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젊은이에게 “비키라”고 말하고픈 충동이 있다. □
6. 후배의 장점, 성과를 보면 자동반사적으로 그의 단점, 약점을 찾게 된다. □
7. “내가 너만 했을 때” 라는 얘기를 자주 한다. □
8.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
9.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간부, 유명 연예인 등과의 개인적 인연을 자주 얘기하게 된다. □
10. 커피, 담배를 알아서 대령하지 않거나 회식 때 삼겹살을 굽지 않아 기어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후배가 불쾌하다. □
11. 낯선 방식으로 일하는 후배에게 친히 ‘제대로 일하는 법’을 알려준다. □
12.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해라 해놓고 나중에 보면 내가 먼저 답을 제시한다. □
13. 옷차림이나 인사예절도 근무와 연관된 것이므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4. 내가 한때 잘나가던 사람이었음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
15. 연애사와 자녀계획 같은 사생활 영역도 인생선배로서 답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 □

16. 회식, 야유회에 개인 약속을 이유로 빠지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다. □
17.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는 두고두고 잊지 못한다. □
18. '미주알고주알' 스타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확인한다. □
19. 아무리 둘러봐도 나보다 더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
20.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만 실제로 뭘 배운 적은 없다. □

- 창의리더십센터 -

60, 70대를 위한 7Up

1. CLEAN UP : 나이가 들수록 집과 환경을 모두 깨끗이 하고 주변을 정리정돈하며 자신에게 필요없는 물건을 과감히 버려라.
2. DRESS UP :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해서 구질구질 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라. 젊은 시절에 아무 옷이나 입어도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 비싼 옷을 입어도 좀처럼 옷태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3. SHUT UP :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하라. 노인들의 잔소리와 훈수는 모임의 분위기를 망치고 사람들을 지치게 한다. 말 대신 박수를 많이 쳐주는 것이 환영받는 비결이다.
4. SHOW UP : 회의나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해라. 집에만 칩거하며 대외활동을 기피하면 정신과 육체가 모두 병든다.
5. CHEER UP : 언제나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라. 지혜롭고 활달한 노인은 주변을 활기차게 만든다. 지혜로운 발에다 독창적인 유머 한 가지를 곁들이면 더 바랄 것이 없다.
6. PAY UP : 돈이든 일이든 자기 몫을 다하라. 지갑은 열수록 입은 달을수록 대접 받는다. 우선 자신이 즐겁고 가족과 손아래 사람들로부터는 존경과 환영을 받게 된다.
7. GIVE UP :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라. 이제껏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세상만사와 부부, 자식문제가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변할 수는 없다. 되지도 않을 일로 속을 끓이느니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심신이 편하다.
8. STAND UP : 눈치 없이 오래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라.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바로 알아야 한다.

4가지 나이

- (1) 역연령(歷年齡):시간의 흐름이 기준.
- (2) 생리적 연령:몸의 상처가 치유되는 속도가 기준.
- (3) 심리적 연령: 두뇌의 기능, 감정의 차이, 감수성 등이 기준.
- (4)사회적 연령: 일을 처리하는 능력과 판단력 등이 기준.

*“신념이 있으면 젊어지고, 의심이 있으면 늙어진다.
자신을 가지면 젊어지고, 절망을 품으면 늙어진다.”-더글라스 맥아더*

나이란 마음먹기의 차이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 김 준 업 -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의 신학과 영성

강사 : 방선기 목사

산 제물로 드려라 | 로마서 12:1-2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실된 섬김 | 에베소서 6: 5-9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일상생활의 신학, 신앙, 영성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일상생활의 철학, 일상생활의 사회학 등
성경이 보여주는 일상생활의 관심 vs 전통적인 교회의 일상생활에 대한 무관심

1. 일상생활의 신학-기독교 세계관

교리적인 신학을 넘어서 일상생활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 크리스천이 고스톱을 치는 문제에 대해서
- 섹스(Sex)/인터넷 등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1) 신학의 체계

- 창조의 원리(딤펴전4:4-5)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선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
- 타락의 원리(롬5:12) 아담의 죄악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죄로 오염시켰다.
- 구속의 원리(고후5:17)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2) 사례: 직업의 신학

- 일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특권이다.
- 일에 고통이 따르게 되었고(창3:19) 일이 우상이 되어버렸다.(전4:8)

- 모든 일은 주께 하듯해야 하며(골3:23)
일이 주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빌3:7-8)

2. 일상생활의 신앙- 종교를 초월하는 신앙

종교 활동을 넘어서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

(1) 신앙의 핵심-하나님과의 관계(Relation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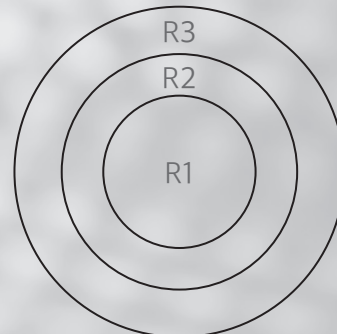
-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 내면적인 신앙과 외적인 표현과의 관계

(2) 종교로 나타난 신앙(Religion)

- 신조로 나타난 신앙
- 예식으로 나타난 신앙
- 체험으로 나타난 신앙
- 지식으로 나타난 신앙
- 활동으로 나타난 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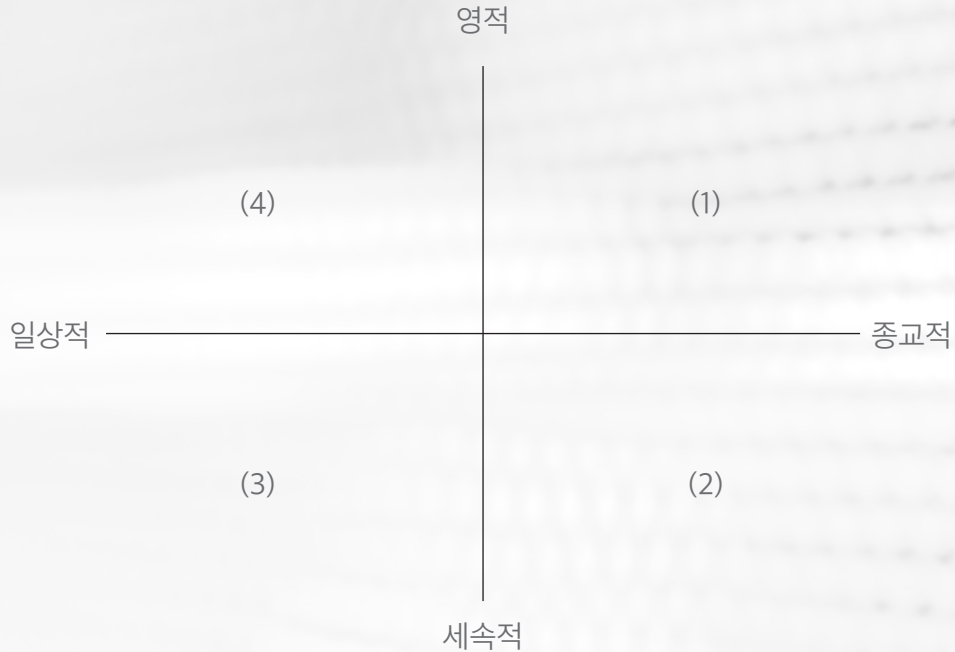
(3) 일상생활의 신앙 (골3:11-4:6)(Real Life)

- 개인적인 생활
- 공동체 생활
- 가정생활
- 직장생활
- 사회생활



3. 일상생활의 영성- 직업의 영성

종교적인 체험이나 종교활동을 넘어서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



(1) 종교적인 영성

- 전통적인 경건생활
- 교회를 통한 종교적인 활동

(2) 종교의 세속화

- 종교예식의 타락(사1:10-17)
- 종교인들의 형식주의(마6:1-7)
- 종교의 물질적인 타락(막11:15-18, 신23:18)

(3) 세속에서의 일상

- 세상의 죄악의 보편성(롬5:12)
- 인간생활의 허무성(전1:14)

(4) 일상생활의 영성

- 비종교적인 일상의 일도 거룩해질 수 있다.(딤후4:4-5)
-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일상생활(전9:7-10)

(5) 일상생활의 영성의 사례

- 먹는 일의 영성
- 의복의 영성
- 결혼의 영성
- 노동의 영성
- 자연의 영성(시29편)
- 대화의 영성(삼하16:10-12)
- 만남의 영성(룻2:3)



결론

일상생활은 하나님의 관심사이며 성도들의 신앙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가정과 장로의 역할

강사 : 김성묵 장로

마태복음 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19-20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I. 들어가는 말

1. 인생의 주기

30/30/30

2. 가정이란

(1) 가정은 인생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2) 가정은 국가의 심장입니다.

(3) 가정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II. 바람직한 가정

1. 우선 순위 (가정에 헌신)

(1)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일/가족/친구/건강/영혼

(2) 가정의 우선순위

- 부모
- 부부
- 자녀



2. 의사 소통

(1) 관계 방정식(인생 방정식)

접근	자극	감정/자유의지
반응	반응	적절한 반응 과격한 반응 엉뚱한 반응
관계	삶	죄성 / 상처 / 문화

(2) 부부관계

① 결혼에 관련된 잘못된 신화

-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 살았더라.

부부의 유형	- 갈등을 억누르는 부부
	- 갈등을 회피하는 부부
	- 갈등을 극복하는 부부

② 성격차이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접근	- 감정 / 자유의지
반응	- 불화 / 갈등
관계	- 감정 : 부정적 강화 - 관계 : 상호 경직

③ 부부관계의 묘약

- 남자 : RESPECT - 인정. 격려. 칭찬
- 여자 : LOVE (CARE) - 염려. 배려. 관심

3. 삶의 목적과 방향

III. 장로의 역할

1. 가정

2. 교회

3. 사회

• 3가지 마음

① 첫 마음

② 열린 마음

③ 아버지의 마음



IV. 맺는말



장로의 영성과 리더십

강사 : 이장로 교수

낮은 곳 더 낮은 곳 | 빌립보서 2:5-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작은 예수 | 에베소서 4:13-15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I. 리더십의 개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 10:42-45).

1. 리더십이란?

(1) 다양한 정의

사전에 따르면 리더십은 리더의 자리 또는 기능, 지도력, 지도자가 취한 행동 및 그로 인한 사건, 한 그룹의 리더들을 총칭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리더십은 많은 상이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도 <표9-1>에서 보는 것처럼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Yukl, 2006).2)

표1. 리더십 정의

정 의	연 구
리더십은 “개인의 행동이며... 집단의 활동을 공유된 목표로 향하게 한다.”	Hemphill & Coons(1957)
리더십은 “조직의 일상적인 지시에 기계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넘어서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Katz & Kahn (1978)
“리더십은 개인이... 부하들의 동기를 자극하고 끌어들이며 만족시키기위해서 제도적, 정치적, 심리적, 그리고 기타의 자원을... 동원할 때 발휘된다.”	Burns (1978)
“리더십은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성공적으로 다른 사람의 현실을 구성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Smirchch & Morgan (1982)
“리더십은 목표를 성취하도록 조직화된 집단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Rauch & Behling (1984)
리더십은 비전을 명확히 하고 가치를 구체화시키며, 그 안에서 일이 달성될 수 있도록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다.”	Richards & Engle (1986)
“리더십은 집합적 노력에 목적, 즉 의미 있는 방향을 부여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을 확대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Jacobs & Jacobs (1990)
리더십은 “문화 바깥으로 나가...보다 적응적인 진화적 변화 과정을 착수하는 능력이다.”	Schein (1992)
“리더십은 사람들이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몰입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Drath & Palus (1994)
리더십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동기를 부여하며 타인이 조직의 효과성과 성공을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능력이다.”	House et al.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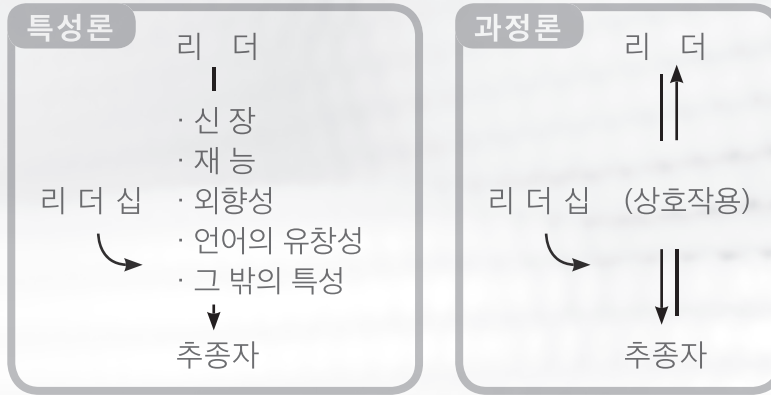
출처 : Yukl,G.A.(2006)

(2) 리더십은 리더의 특성인가, 리더와 추종자의 상호작용 과정인가

다양한 리더십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리더십의 성격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하다. 특성론적 시각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리더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천부적 특성이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한다. Jago(1982)에 따르면, 특성론적 관점은 리더십을 ‘특별한 사람들만이 남들과는 달리 상이한 정도로 소유하고 있는 특성이나 속성’이라고 본다. 반면 과정론적 관점에서는 리더십은 상황 속에 존재하는 현상이고, 누구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서 리더십의 유형을 임명된 리더십과 자생적 리더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즉, 어떤 사람은 조직 내의 공식적인 직위를 가짐으로써 리더가 되는

반면, 조직 내 특정한 지위는 없지만 집단구성원들이 그에게 반응을 함으로써 자생적인 리더십을 가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림 1.



출처:Northouse, P. G. (2007)

또 다른 질문은 리더십을 개인의 전문화된 역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된 영향력의 과정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이에 대한 하나의 견해는 너무 폭넓게 공유하면 집단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집단은 어떤 책임과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화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개인은 ‘리더’로 임명되며 다른 구성원들은 ‘부하’로 불리게 된다. 반면 리더십은 사회체계 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여 구성원 사이에 확산되는 영향력의 과정이라는 견해도 있다. 사회체계 내의 구성원 누구든 언제든지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으며 리더와 부하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리더십을 공유되고 확산된 과정으로 보는 연구자들은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영향력의 과정과 그 영향력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결정하는 상황과 조건, 그리고 집단과 조직에 대한 결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3) 리더십과 관리

리더십과정은 관리과정과 비슷하다. 리더십이 영향력을 포함하는 것처럼 관리과정에서도 영향력이 행사된다. 또한, 리더십과 관리는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지향한다. 하지만 리더십은 관리와는 다르다. 개인이 관리자가 되지 않고도 리더가 될 수 있으며, 리더가 되지 않고도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Bennis와 Nanus(1985)는 “관리자는 일을 옳게 하는 사람들이며, 리더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Rost(1991)는 관리를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 관리자와 부하 사이에 존재하는 권한관계로 설명하였고, 리

더십에 대해서는 진정한 변화를 달성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리더와 부하 사이에 존재하는 다방향의 영향력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Kotter(1990)는 관리와 리더십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였다. 관리의 주된 기능은 조직에 질서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인 반면, 리더십의 일차적 기능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는 조직이 번창하기 위해서는 관리와 리더십 모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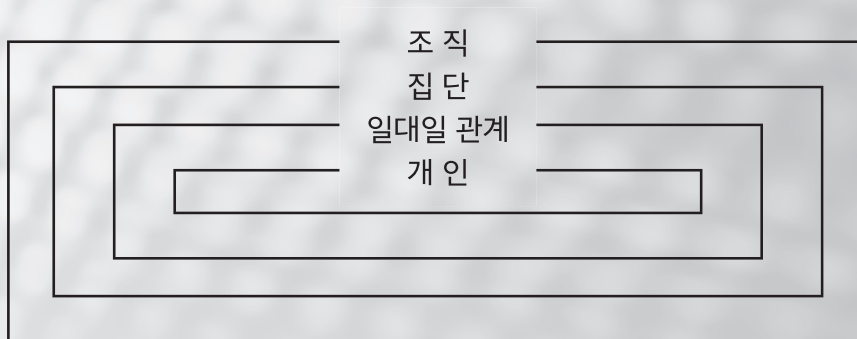
관리(질서와 안정성 추구)	리더십(변화와 발전 추구)
기획·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지침의 설정 - 계획표(시간표) 작성 - 자원의 배분 	방향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설정 - 전체적인 상황 확인 - 전략설정
조직화·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구조 설계 - 직무배치 - 규칙과 절차 개발 	목표를 위한 제휴·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에 대한 의사소통 - 헌신과 몰입 추구 - 팀과 연합체 추구
통제·문제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센티브제도 수립 - 창의적인 해결책 - 수정조치 	동기유발·의욕(영감)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욕(영감)과 활기 고취 - 부하에게 자율권 부여 - 미충족된 욕구 충족

출처: Kotter, J. P. (1990)

2. 리더십 연구의 분석 단위

리더십은 개인 내 과정, 일대일 관계 과정, 집단 과정, 조직 과정으로 구분하여 개념화 될 수 있다. (Yukl, 2006). 대부분의 리더십 이론들은 이러한 개념화 수준들 중 오직 한 가지 수준에서의 리더십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단순하면서 적용하기도 쉬운 다 수준 이론을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 2. 리더십의 과정과 초점



(1) 개인 내 과정 (intra individual process)

대부분의 리더십 정의는 개인 간의 과정(inter individual process)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한 개인 내부의 과정(intra individual process)에 초점을 맞추는 리더십 이론은 드물다. 리더 개인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주로 의사결정, 동기 및 인지의 심리학 이론 등을 사용해 왔다. 이중에서도 자기관리 이론(self-management theory)은 개인이 어떻게 리더나 부하로서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자기관리는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개인적 목표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자기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 내 과정은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리더십 이론을 설명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으나 이러한 지식은 일대일 관계, 집단 및 조직 차원에서 리더십 이론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2) 일대일 관계 과정 (dyadic process)

일대일 관계 이론은 리더십을 리더와 부하 간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핵심은 어떻게 부하와 협력적이고 신뢰하는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하가 더 동기부여 되고 몰입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들이다. 한 가지 예로서 리더-구성원 교환 이론(LMX: leader-member exchange)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대일 관계가 일상적인 교환에서부터 공유된 목표와 상호신뢰를 가진 협력적 제휴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일대일 관계 과정에 관한 연구는 종종 일대일 관계가 일어나는 상황적인 요소의 중요성이 과소평가 될 수는 있지만, 리더십 연구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함에는 틀림없다.

(3) 집단 과정 (group process)

리더십을 집단 과정으로 간주하는 관점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는 과업집단에서 리더가 집단 효과성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집단 효과성에 대한 이론은 리더십 과정과 리더십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기준에 대해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집단에 관한 연구에서는 업무가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얼마나 잘 조직화되어 있는지,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 역할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몰입하는지, 구성원이 성공적으로 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구성원이 과업목표를 달성하는데 상호 간 얼마나 신뢰하고 협력하는지 등 효과성의 중요한 결정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집단 접근에 있어서의 또 다른 핵심 연구과제는 공식 및 비공식 집단에서 나타나는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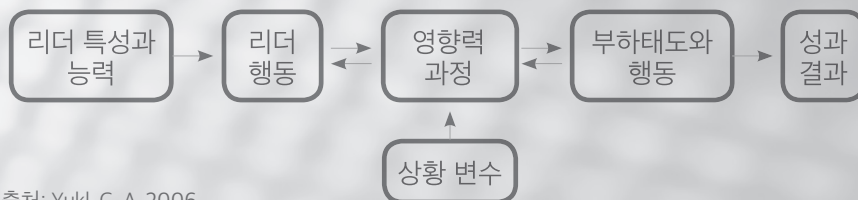
더십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는 특정 구성원이 왜 다른 구성원들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지, 리더로 선택되는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왜 어떤 리더들은 부하들로부터의 신뢰와 자기 자신감을 상실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이론들 중 하나는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이다.

(4) 조직 과정 (organizational process)

집단 과정 접근법은 개인 내 과정 혹은 일대일 관계 과정 접근법보다 리더십 효과성을 더 잘 이해하게 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집단은 일반적으로 더 큰 규모의 사회체계 내에서 존재하며, 만일 연구의 초점을 집단의 내부 과정에만 국한한다면 집단의 효과성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조직 과정 접근법은 리더십을 집단 보다 더 큰 사회체계에서 일어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조직의 생존과 번영은 환경에 대한 대응과 필요한 자원 확보에 따라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조직은 성공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공적인 판매를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 위협과 기회요인 파악, 환경에 대한 대응전략 개발, 조직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협상 타결, 외부로부터 협력과 자원 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리더십의 측면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적절한 조직구조 설계, 권한관계 결정, 조직의 분권화 등을 리더가 전략적으로 수행한다면 효율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3. 리더십 연구의 접근방법

리더십에 관한 엄청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리더십 이론과 연구를 분류하는 유용한 한 가지 방법은 가장 중시되는 변수의 유형에 따르는 것이며, 대부분의 리더십 이론들은 일반적으로 리더의 특성, 리더의 행동, 부하의 태도와 행동, 상황 변수, 영향력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이론과 경험 연구는 다음의 다섯 가지 접근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출처: Yukl, G. A., 2006

(1) 특성 접근 (trait approach)

특성 접근은 성격, 동기, 가치, 능력과 같이 리더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강조하며, 여기서의 가정은 특정 사람들은 천부적인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즉,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 통찰력 있는 직관, 초인적인 선견지명, 타고난 설득력 등과 같은 비범한 능력을 타고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930년대와 40년대 동안의 수많은 연구들은 리더십 성공을 보장해 줄 만한 어떤 특성도 찾지 못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특성과 성과 간 인과사슬 내 매개변수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이후, 보다 잘 설계된 연구들로부터 얻어진 결과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쌓여가면서 리더 특성이 어떻게 리더십 행동과 효과성과 관련되는지를 밝히는데 나름대로의 진보가 있었다.

(2) 행동 접근 (behavior approach)

행동 접근은 특성 접근에 대한 연구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리더가 일할 때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에 좀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1950년대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행동 접근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리더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와 전형적인 행동패턴, 책임, 기능을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직접관찰, 일기, 직무기술 설문지, 면접으로 수집한 일화와 같은 기술적 자료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리더십 효과성은 부분적으로 리더가 얼마나 역할 갈등을 잘 해소하고 요구에 대처하며 기회를 인식하고 제약을 극복하는지에 좌우된다. 행동 접근의 다른 하나는 리더들이 그들의 직무에서의 요구와 제약, 역할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리더십 행동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는 행동기술 설문지를 사용한 현장조사연구를 포함하며 리더십 행동과 다양한 리더십 효과성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3) 상황 접근 (situation approach)

상황 접근은 말 그대로 리더십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황적인 요인들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한 변수들로는 부하의 특징, 집단이 수행하는 작업의 성격, 조직의 유형, 외부 환경의 성격 등이 포함된다. 상황 접근은 두 가지 주요 하위범주, 즉 조직의 상황과 리더의 속성으로 나뉘어진다. 먼저 조직의 상황 측면에서의 접근은 다양한 유형의 조직, 다양한 관리 계층,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걸쳐서 리더십 과정이 얼마나 유사한지 혹은 다른지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다음, 리더의 속성 측면에서의 접근은 리더의 특성, 능력, 행동과 같은 속성과 리더십 효과성의 관계를 조절하는 상황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여기

서의 가정은 상황이 다르다면 다른 리더의 속성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동일한 속성이 모든 상황에서 최적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4) 권력-영향력 접근 (power-influence approach)

권력-영향력 연구는 리더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영향력 과정을 연구하는 접근법이다. 특성과 행동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어떤 권력-영향력 연구는 단일 방향의 인과관계를 가정하는 리더중심의 관점을 갖는다. 이 연구는 리더가 소유한 권력의 정도와 유형 그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의 관점에서 리더십 효과성을 설명하려고 했으며 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나아가, 다른 연구자들은 리더가 부하들의 태도와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사건 기술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여기서는 서로 다른 영향력 전술에 대해 어떤 전술이 리더가 원하는 것을 부하들에게 하도록 하는데 더 효과적인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였다. 많은 연구들은 참여적 리더십에 대한 부하의 지각과 만족, 노력, 성과와 같은 리더십 효과성 간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5) 통합 접근 (integrative approach)

통합 접근은 한 가지 유형 이상의 리더십 변수를 포함하는 관점이며,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두 가지 유형 이상의 리더십 변수들을 하나의 연구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하지만 여전히 특성, 행동, 영향력 과정, 상황변수, 결과변수 등의 모든 변수들을 통합하는 이론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II. 예수님의 리더십 모델

예수님의 리더십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이 필요하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더십 연구의 분석단위와 접근방법들은 크게 네 가지 차원, 즉 개인, 일대일 관계, 집단 및 사회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위대한 리더 예수님의 리더십을 위의 네 가지 차원에 모두 담아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개인, 관계, 집단, 사회 등 네 가지 차원에서 간략히 살펴보려고 한다.

1. 개인차원 : 자기를 알고 사명을 따르는 셀프 리더십

개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자기를 알고 소명을 따르는 셀프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자기인식, 사명의식, 팔로워십(followership), 셀프 리더십(self-leadership)에 관해서 차례로 설명하려고 한다.

(1) 자기 인식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리더십의 원천은 관계, 지위, 시스템, 사회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본원적인 원천은 리더 자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리더 자신이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리더십을 갖게 하는 출발점이다. 예수님에게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분명한 자기 인식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소리를 들은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막1:11, 마3:17, 눅3:22)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례 사건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는 나를 기뻐한다’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례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만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자기 인식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나는 ~이다’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요6:35, 48, 51).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8:12). “나는 문이다”(요10:9). “나는 선한 목자다”(10:11).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요11:25).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14:6).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요15:1).

목회자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정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기에 소크라테스는 무엇보다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한 것 같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알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 그것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진을 나타내셨기에 가능했다. 모세나 예수님의 자기 인식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인식은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는 진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오늘날도 어느 사람이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새롭게 인식하며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참 그리스도인이고 목회자이다.

(2) 사명 의식

사명이란 보낸 사람이 맡긴 임무를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누군가로부터 보냄 받은 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말한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 셧고,

보내신 이의 뜻, 즉 자기의 임무가 있다고 말씀했다(마10:40, 15:24; 눅4:18-19; 요3:34, 4:34, 5:24, 6:39, 6:44 외 다수). 예수님은 사명 의식 속에서 사셨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4:18-1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 4:34).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요 17:4)

목회자 또한 사명 의식 속에서 살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임무(예를 들어, 제자 양육의 임무)를 알아서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 중요하다. 목회의 성공 여부는 사명의 완수에 있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사명에 목숨을 걸었고, 바울도 그랬다. 바울의 사명 의식은 목회자들에게 본이 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쳤다.

(3) 팔로워십(followership)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팔로워(Follower)’로서 사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 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빌2:6-8).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잔을 앞에 두고 겻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마26:39). 예수님은 결코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늘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동하셨다.

목회자 역시 팔로워로서 살아야 한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고 그런 사람을 높여 주신다. 그리고 자기를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 즉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목회자의 분복이다. 목회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나의 사명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인가를 분별해야 한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역이 많아질수록, 바빠질수록 기도 시간을 늘리도록

록 힘써야만이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 또한 목회자는 자기 생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 지도자들, 멘토, 코치의 의견을 경청하고 따라야 독선에 빠지지 않게 된다. 무엇 보다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4) 셀프 리더십

셀프리더십은 과업이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스스로 자신을 리드하기 위해 취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며, 자기주도와 자기 동기부여 하에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셀프 리더십 특징은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자기 인식, 보냄 받은 자로서의 사명 의식,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팔로워십 이다. 목회자에게 왜 셀프 리더십이 중요한가는 목회자가 스스로 다음 질문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기 인식이 있는가?
- 나는 사명 의식이 갈수록 굳건해 지고 있는가?
- 나는 팔로워로서 자원(시간, 재능, 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나는 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2. 관계 차원: 사람을 얻는 서번트 리더십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 10:45)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 오셨다. 관계 차원에서 본 예수님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사람을 얻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서번트 리더십에는 4가지 핵심요소가 있다.

(1) 성육신

예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육신 사건이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 오셨다. 이와 같이 사람을 얻는 제1원칙은 자신의 위치를 떠나 자신이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를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관계가 깨진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고 하자. 이때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들을 다시 얻으려면 아버지가 그 권위를 내려 놓고 아들에게로 찾아 가야 할 것이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선 죄악이 가득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목회자가 성육신의 삶을 실천할 때 사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종의 모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종이 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얻으시기 위해 제자의 종이 된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미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 하셨다(막9:33-35). 그리고 예수님은 뭇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시청각 교육으로 제자들에게 확실히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약 12시간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식사 자리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되셔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13:14-15). 예수님이 죽음이 임박한 시간에도 그 어떤 것 보다 우선시 했던 것은 제자들을 섬기는 것이었다. 그런 예수님을 진실로 안다면 목회자는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마지막 시간에 누구와 함께 하며 누구를 섬기고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 보자.

(3) 희생 제물

예수님의 서번트 리더십은 성육신, 종의 모델에 이어 희생 제물이 되신 데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성경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5:8)고 말한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양처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엡5:2).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당신의 목숨으로 대신 지불 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의 피 값 주고 산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목회자가 사람을 얻는 비
밀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의 몸 된 교
회, 즉 성도들에게 아낌 없이 내어 주는 희생의 삶이 있다면 성도들은 그런 목
회자를 따를 것이 분명하다.

(4)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서번트 리더십의 마지막 요소는 끝까지
함께 하는 사랑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13:1). 몇 시간 후에 잡히시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제
자들과 함께 그 남은 시간을 보내셨다. 만일 나라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
까를 생각해 본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 할 가롯 유다 마저 끝까지 사랑하고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
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부활의 표징을 보여주셨다. 일상으로 돌아가 밤새
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
로 고기를 잡게 하시고 조반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먹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
시다. 또한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3. 집단 차원: 제자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임파워링 리더십

집단 차원에서의 예수님의 리더십의 특징은 제자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능력부
여(empowerment)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임파워먼트(empowerment)’
란 구성원들이 지닌 잠재력을 인정하고 그들이 지닌 재능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
휘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리더십을 ‘임파워링 리더십
(empowering leadership)’이라고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나라의 일
을 맡기시는 동시에 그에 필요한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요14:12).”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질 성령을 기다리라...성령이 너희
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
리라(행1:4-8).”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
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막16:17-18).”

목회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할 할 것 바울은 권하고 있다. 이런 영적 은사를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는 목회자는 영적 은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목회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영적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권능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도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이 재능을 사용해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주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다 묻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 받은 재능을 사용해서 남긴 사람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사람들은 각각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 자기의 강한 재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리더가 사람들의 재능을 강화시키려면 ‘적재적소 배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 적합한 인재를 적합한 장소에 가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각자 자기에 맞는 자리에 가야 능력도 개발되고 조직도 건강해진다.

그렇게 하려면 리더는 사람을 볼 때 성품도 봐야 하지만, 그 사람의 재능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게 맞는 일을 주고, 그 일을 통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기쁨으로 리더를 따를 것이다.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한 것처럼, 진정한 리더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많은 결실을 거두고, 성공하게 만드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따르는 사람들이 이용만 당하는 경우가 많다. 공로는 상사가 독차지 하고, 책임은 부하에게 전가시킨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고, 능력을 개발시켜 주시고, 성공을 맛보게 하신다. 예수님은 내가 따르고자 할 때 성령을 부으시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발견케 하시고, 늘 함께하셔서 하는 일마다 형동하게 해 주신다. 때로 실수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도 오래 참아 주시고 또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성취감을 느끼며 지속적으로 성숙의 과정을 밟아 리더로 만드신다. 리더를 세우는 리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의 능력을 키워주시기 위해 현장학습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병고 치는 모습은 물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과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여 주셨다.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 마을로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 학습도 시키셨다. 필자가 교장으로 섬기는 한국리더십학교는 이러한 현장학습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리더십학교의 1년의 정규 과정이 끝나게 되면 마지막 과정으로 미국으로 Field Study를 떠난다. 그리고 예수님은 현장 학습과 함께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그들이 성숙해지는 방법으로 제자를 삼을 것을 명령하셨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들을 성숙하게 하신 것과 같이, 제자들도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아, 그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그들의 성숙을 도와주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직접 가르쳐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의 성숙을 위해 그들에게 능력도 부여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의 성숙을 도모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임파워링 리더십이다. 목회자가 성도들과 함께 교회의 목적을 이뤄갈 때에 힘써야 할 일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에까지 이르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목사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목회자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자라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임파워링 리더십 모델이다.

4. 사회 차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변혁적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의 사회 차원의 리더십 특징은 한 마디로 하나님나라를 구현하는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 1:14-15).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고,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이며, 바울의 핵심 메시지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실재한다. 그 나라는 볼 수 있고(막 9:1; 눅 9:27), 들어갈 수 있으며(마 7:21; 요 3:5), 상속받을 수 있다(마 25:34).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눅 17:21).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실재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어 나를 통치하시는 것에서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 분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계획하신 일들을 알고 이해하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Calling)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하나

님 나라의 실재를 날마다 인식하며,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는 뿐이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문화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선 하나님 나라가 누룩(효모)과 같다고 하셨다(마 13:33). 요리사는 빵을 반죽할 때 효모를 첨가한다. 효모가 작용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효모는 밀가루 속으로 들어가 반죽을 부풀게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소금으로, 빛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존재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것(Calling)과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Mission)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부르신(calling)’ 하나님께서 또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애굽으로 보내셨다(Mission). 우리도 이와 같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보냄 받았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모든 그리스도인은 빵 속의 효모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사로서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한다.

셋째, 하나님 나라는 영적 반대 세력에 맞선다(마 13:25). 사탄은 자신의 제한된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로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은 실제 하며,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의 적들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저지하려 한다 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사탄이 전투를 이기는 듯 할지라도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보증해 주셨다.

넷째, 하나님 나라는 위대한 가치를 가졌다. 하나님 나라는 창조된 이 세계의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마 13:44),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마 13:46)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마치 보물 또는 진주를 발견한 자와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새로운 보물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소유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치와 같을 수 없고, 생활 속에 하나님 나라의 법과 통치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것이다.

다섯째,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으며 이를 막을 수 없다. 예수님은 씨가 싹을

틱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씀하셨다(막 4:26-29). 하나님 나라의 좋은 씨들은 그 주변의 영경귀와 같은 방해꾼들에게도 불구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끝없이 확장되고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세상에 아무리 끔찍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선 우리에게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명령하셨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목회의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환상이 아닌 현실이다. 그 나라는 우리가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반대 세력은 실존하지만 그 어떤 힘도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사(歷史) 가운데로 하나님께선 목회자들을 부르셨고, 또한 부르시고 계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이들의 마음 속에서 시작되어, 그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이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

III. 관계 리더십의 실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더십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관계 차원에서의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어 “리더십은 사람을 얻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에서의 관계적 영향력이라고 정의하려고 한다. 리더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 먼저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채워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대인관계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1. 문화 차이의 이해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생각, 말,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 말, 행동은 그가 속한 그룹의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그가 속한 문화와 내가 속한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클라크혼(Klockhohn)은 인간의 여섯 가지 기본문제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인간행동 및 문화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1)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선한 것인가 또는 악한 것인가? 인간의 본성은 변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절대 불변하는 것인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어떤 관리자가 성선설을 따른다면 사람들을 신뢰하고 참여적 리더십을 선호할 것이지만, 성악설을 따른다면 사람들을 불신하고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지시적 리더십을 선호할 것이다.

(2) 인간과 자연의 관계

사람이 자연을 지배하는가, 또는 자연에 복종해야 하는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리더십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획을 강조하고 변화적 리더십을 선호할 것이다. 반면에 인간을 자연에 복종하는 존재로 본다면 사람들은 외부통제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변화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3) 인간관계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가, 또는 집단주의적인가에 따라 인간관계와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수평적 관계를 선호하며 그룹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경쟁을 강조하게 된다. 집단주의적 문화에서는 수직적 관계를 선호하고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며 조직 내 상하관계와 협동을 강조한다.

(4) 활동양식

활동양식이 동적인 경우 성과를 중시하고, 설정된 목표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업적을 강조한다. 반면, 정적인 경우는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5) 시간지향성

미래지향적인 문화에서는 과거의 성과보다 미래의 계획이 더 중요하며 변화와 훈련을 강조한다. 반면에 과거지향적인 문화에서는 과거의 전통과 역사적

인 교훈을 강조하고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한다.

(6) 공간지향성

사람이 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는가 또는 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적인 공간 사용을 중시한다면 개인적인 공간소유를 중시하고 격리된 장소에서 회의를 하며 은밀한 진행을 선호한다. 반면 공적인 공간 사용을 중시하는 경우 공개회의를 선호하고 사무실의 공간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것을 선호한다.

2. 사람의 필요에 대한 이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7:12)
위의 말씀은 보통 대인관계의 황금률로 불려진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비결은 먼저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려면 그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섬기려는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살펴보자.

(1)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한다

먼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섬김의 출발이다.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면 상대방도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은 관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존중은 관계의 기본이다.

둘째, 상대방과 나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라.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형제들도 많이 다르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투는 근본 이유 중 하나는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행동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상대방의 강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라. 사람은 대개 다른 사람의 강점을 인정하기보다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기까지 한다.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지 결코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강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넷째, 상대방에게 감사하라. 감사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최상의 수단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먼저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 가게 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감사는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2)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며 용서받기 원한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양심에 의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의식의 해결을 위해 용서를 원한다. 특별히 누군가 먼저 다가와 그러한 용서를 베풀어주길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대속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용서 받은 자로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 18:35)

그렇다면 누가 먼저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갈 것인가?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줄 때 무척이나 인색한 모습을 보이곤 한다. ‘나는 잘못된 것이 없으니 잘못된 사람이 용서를 구하려고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기억해야 한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있는 인간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셨다.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서번트 리더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좋다.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이며, 서번트 리더의 자세이다.

(3) 누구나 잠재능력의 성장을 원한다

본래 생명은 성장 본능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을 원한다. 사람은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잠재능력을 키워가는 것에 성공을 느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그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 영적 성장의 목표이다. 그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관계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성장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들을 참된 방향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성장을 격려하고, 도와줌으로써 서번트 리더로서 섬길 수 있다. 그 섬김은 아주 단순하고, 쉬운 일에 대한 성장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인한 참된 성장으로 인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4) 누구나 섬김을 받기 원한다

사람은 여러 가지의 욕구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욕구들이 채워지기를 원한다. Maslow는 5단계로 구성된 ‘욕구 단계설’을 주장했는데, 그에 따르면 각 단계에 대한 충족감이 어느 정도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다음 단계의 욕구를 지향한다고 한다. 따라서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된 후에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안전의 욕구를 지향하게 되고, 이를 어느 정도 충족한 뒤에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가 점점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진정한 섬김이란 사람

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사람의 욕구에 따른 섬김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신뢰를 쌓기 위한 감정은행계좌

신뢰 위에 관계가 구축되고 신뢰가 깨어지면 관계 역시 무너지므로 신뢰는 관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역시 믿음을 기초로 회복되고 증진된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신뢰는 장기간의 관계투자를 필요로 한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서로가 상대방의 '신뢰계좌'에 예금을 해야 한다. 스티븐 코비는 이를 '감정은행계좌'라 이름을 붙이고 이 은행계좌에 예금하는 6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해의 편의상 '신뢰계좌'라 부르려고 한다.

(1)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

사람이 신뢰계좌에 예금하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신뢰예금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관점과 가치를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2) 사소한 일에 대한 관심

인간관계에서 커다란 손실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사람들은 매우 상처받기 쉽고 내적으로 민감하다. 약간의 친절과 공손함은 신뢰계좌에 예금하는 행위가 된다. 이와 반대로 작은 불손, 작은 불친절, 하찮은 무례 등은 신뢰계좌에서 인출하는 행위가 된다.

(3) 약속의 이행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예금행위이며, 약속을 어기는 것은 신뢰를 감소시키는 중대한 인출행위이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습관을 갖는 것이 신뢰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다.

(4) 기대의 명확성

상대방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불명확하거나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목표가 불분명한 경우 의사소통과 신뢰를 손상시킨다. 거의 모든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역할과 목표에 대한 갈등이나 불분명한 기대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서로에 대한 역할과 기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 갈등을 예방하므로 신뢰계좌에 예금행위가 된다.

(5) 언행일치

언행일치는 자기의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므로 셀프 리더십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도 언행일치는 상대방에게 말한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켜서 신뢰계좌에 예금행위가 된다. 언행일치의 원칙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할 것이다.

(6) 진지한 사과

실수를 저지르는 것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사람들은 실수를 기꺼이 용서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면 반드시 진지하게 사과해야 한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과는 불성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신뢰를 손상시킨다.

4. 대인관계 리더십의 원칙

스티븐 코비는 인간관계에 대한 6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유형으로 승/승(win/win) 관계를 대인관계 리더십의 원칙으로 주장한다. 인간관계의 6가지 유형을 설명하고, 승/승 관계를 위한 성품 차원을 살펴보고 있다.

(1) 승/승 관계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는 유형으로서 대인관계에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철학이다. 이 같은 철학은 인생을 제로섬(zero sum) 게임의 경쟁으로 보지 않고 협력하는 포지티브섬(positive sum) 게임의 장으로 본다. 또한 나의 방식이나 상대방의 방식이 아닌 제3의 더 나은 방식이 있다는 전제를 가진다. 성품 측면에서도 성숙도가 높아서 용기와 배려 간의 균형을 이룬다. 즉, 다른 사람의 감정과 신념을 배려하면서 자기의 감정과 신념을 용기 있게 표현한다.

(2) 승/패 관계

나는 이기고 상대방은 지는 승패적 사고방식은 리더십스타일에서 권위주의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하기 위해 지위, 권력, 재산 또는 배경 등을 동원하는 경향이 있다. 승패적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비교, 운동시합, 각종 법률적 규제 등이다. 성품 측면에서 보면, 내가 용기는 많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경우 그 결과는 승/패 관계가 될 것이다.

(3) 패/승 관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지고 상대방은 이기는 사고방식에 훈련되어 있다. 그들 마음 속에는 “계속해라 나를 네 마음대로 해봐” 또는 “난 평화주의자야”라는 사

고가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대중적인 인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에서 만족감을 얻으려 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신념 등을 용기 있게 표현하지 못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이 갖는 문제는 자기 감정을 묻어 두고 표현하지 않은 채로 있다가 나중에 보다 나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성품 측면에서 보면 상대방의 신념과 욕망에 대한 배려는 높지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해주고 실천할 만한 용기는 낮다.

(4) 패/패 관계

나도 지고 상대방도 지는 사고방식은 적대적인 갈등의 철학에서 나온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에 아무런 방향을 갖지 못하는 매우 의존적인 사람들이 갖는 사고방식이다. 이들은 스스로 비참하게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성품 측면에서 보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낮고, 자신의 신념과 감정을 표현할 만한 용기도 낮다.

(5) 승 사고

단지 이기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반드시 패배해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들에게 남의 일은 관심 밖이다.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6) 승/승 아니면 무거래

이것은 쌍방이 이기거나 또는 쌍방의 이익이 되는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점에 동의하고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기대도 일어나지 않게 되고 어떤 갈등도 생기지 않는다. ‘승/승 아니면 무거래’는 앞에서 설명한 승/승 관계 보다 더 많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다. 이것을 고려하면 한 차원 높은 인간관계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승/승이 아니더라도 무거래를 선택할 수 없는 인간관계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가족관계, 특히 모자관계로서 어머니는 자녀에게 늘 지고 손해 보면서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한다.

5.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관계는 인간에 대한 관점, 철학 및 성품 등에 의해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또한 인간관계의 기초는 신뢰이고 그것은 오랜 기간의 관계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나와 상대방의 커뮤니케이션은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 대인관

계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은 아래에 설명하는 공감적 경청이다.

(1) 공감적 경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보통 다음의 다섯 가지 수준 중 어느 하나로 듣고 있다. 첫째,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실제로 듣지 않는 것이다. 둘째, 맞장구를 치면서 듣는 체 하는 것이다. 셋째, 선택적 청취로 어떤 특정 부분만 듣는 것이다. 넷째, 신중한 경청으로 상대가 하는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에 총력을 집중하여 듣는 것이다. 다섯째, 가장 고차원의 경청으로 공감적 경청이다.

공감적 경청이란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보통 남에게 먼저 말하고 이해 받고 싶어한다. 또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에도 이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듣기 보다는 대답할 의도를 갖고 듣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말을 하고 있거나 말할 준비만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에서 들을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감적 경청이란 상대방이 가진 준거틀의 내면에 들어가서 그의 관점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도 이해하는 것이다. 공감적 경청의 경우는 상대방의 말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체언어를 눈과 가슴으로 듣는다.

(2) 자서전적 경청

자서전적 경청이란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듣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다음 네 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반응하는 경향을 말한다. 첫째, 판단한다. 이것은 동의하느냐 또는 동의하지 않느냐의 반응을 말한다. 둘째, 탐사한다. 이것은 자신이 가진 준거틀에 입각해서 질문하는 것이다. 셋째, 충고한다. 이는 자신의 경험에 따라 조언하는 것이다. 넷째, 해석한다. 이것은 자신의 동기와 행동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동기와 행동을 유추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반응을 말한다. 이와 같은 네 가지 반응 유형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자서전적 경청은 상대방의 준거틀에 들어가서 그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은 '먼저 경청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 상대방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라'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경청하고 그를 깊이 이해할수록 그만큼 그들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고 더 큰 존경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과 접촉한다는 것은 신비한 경험이다.



다음세대의 이해와 교회의 책임

강사 : 최셋별 교수

후손이 알게 하라 | 신명기 4:1, 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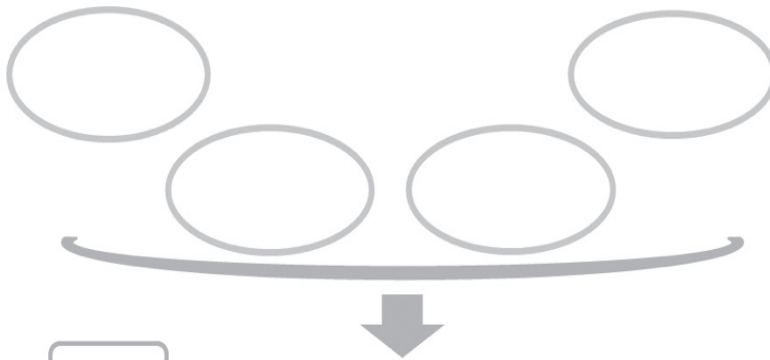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 에베소서 6:4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코세대’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

1. 세대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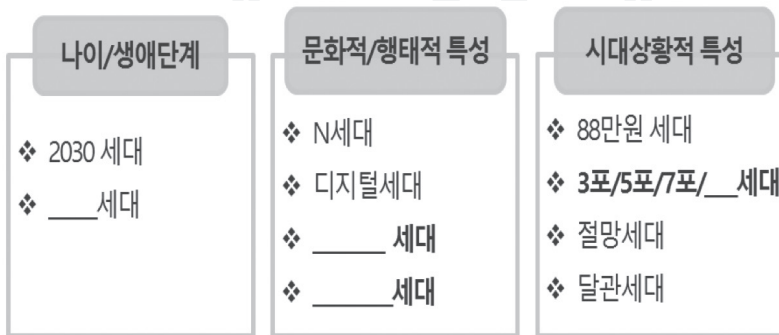
❖ 생애 주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특정 시대적 상황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이를 통해 유사한 가치관과 의식 및 태도를 지닌 집단 (박재홍, 2005)

2. 에코세대는 누구인가?

(1) 에코세대의 사전적 정의와 기원

- ① 에코세대란?
- ② 인구학적 측면
- ③ 사회문화적 측면

(2) 에코세대를 명명하는 다양한 명칭들



- P세대: 적극적 참여(Participation), 열정(Passion), 힘(Potential power)을 바탕으로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킨 세대(Paradigm-Shifter)
- IP세대: 재미와 열정(Interest & Passion), 국제적 잠재력(International Potential), 혁신의 개척자(Innovative Pathfinder), 똑똑한 재테크족(Intelligent Portfolio)
- 3포/5포/7포: 연애, 결혼, 출산/인간관계, 주택구입/꿈,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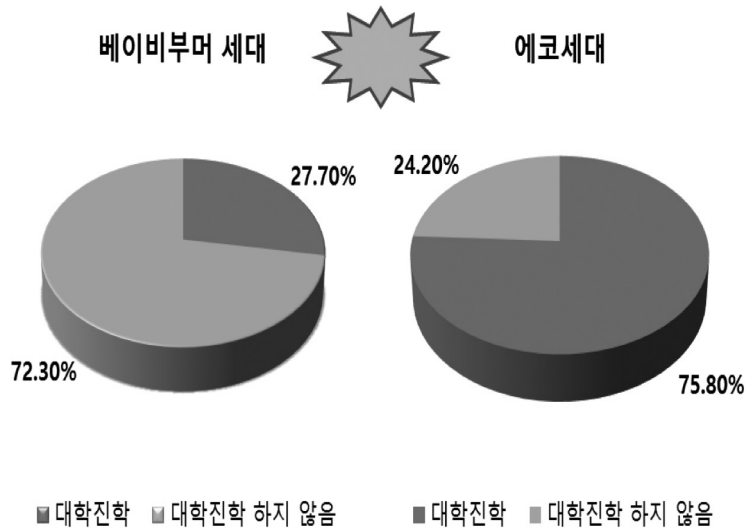
3. 에코세대의 삶의 궤적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 _____ ▪ 정치적 탈권위 및 긴장 완화의 상황에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부터 경제적으로 풍족 ▪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 심화
사회적 측면	문화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층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성장 ▪ _____에 대한 인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_____활성 (개인용 PC, 케이블 TV, E-mail 등의 보급) ▪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를 배우고 해외경험 및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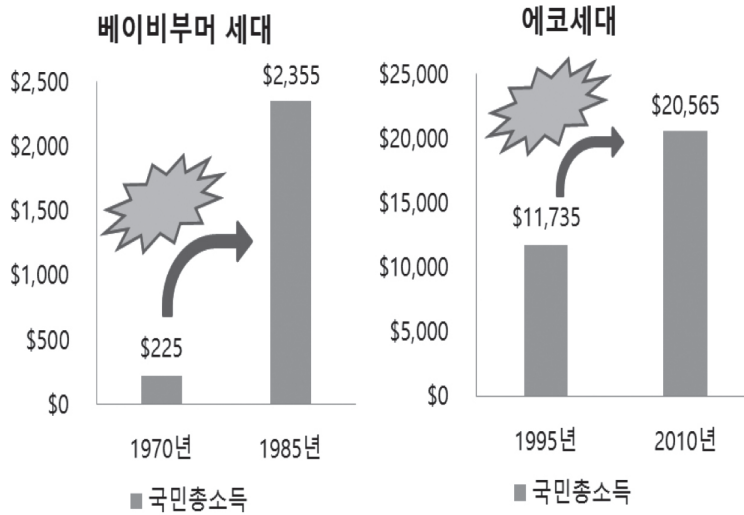
(1) 에코세대가 경험한 주요 사건들

① 수치로 보는 에코세대의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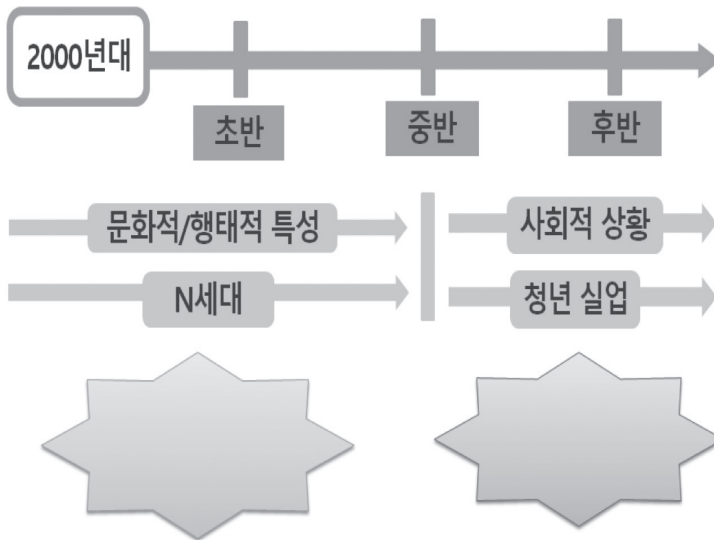
- 대학 진학률



② 성장기 1인당 국민총소득



4. 에코세대를 둘러싼 시선의 변화



5. 에코세대의 특징

(1) 자기계발에 매진하는 네이티브와 태생적

❖ 뛰어난 능력과 풍부한 문화자본을 갖춘 세대

- 높은 교육열 및 대학 진학률을 통한 학력자본
-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험 (개인용 PC, 조기 외국어 학습, 해외여행)을 바탕으로 한 컴퓨터 및 영어실력

❖ 자기계발에 매진하는 세대

- 끊임 없는 배움, 스펙과 역량을 위한 노력
- 고학점을 위한 재수강, 제2외국어 학습, 몸매/외모 관리

(2) “인생의 목표는 _____ 사는 것”

❖ 재미와 즐거움을 삶의 우선적인 가치로 생각

- 에코세대의 75%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

❖ 여가와 문화생활 증시

- 주어진 연차나 휴가를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YES)
- 휴일에 일이 있다면 꼭 출근해야 한다. (NO)

❖ 재미를 추구하고 여가를 향유하는데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

- 에코세대의 경우 자신이 특별하게 선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에 상관없이 최고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감성, 문화, 유행 등에 민감하여 가치소비와 충동소비를 많이 하는 편 (임미리, 2013)

(3)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가 확실한 _____

- ❖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에 행동을 취함
- ❖ '내 것' 중시 경향
 - 외환위기 경험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
 - 에코세대의 고민은 연애나 결혼이 아닌 '취업과 돈'
- ❖ 최근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실용주의가 극단적으로 나올 수 있음
 - 봉사도 스펙: 무조건적인 희생과 봉사 NO



(4) “내가 제일 중요해” _____를 거부하는 평등주의자들

- ❖ 자유로움이나 평등과 같은 가치를 중시
- ❖ 즉흥적인 인간관계
 - 온라인 중심
 - '의리나 정' 보다는 '재미와 실용성' 추구
- ❖ 탈권위주의에 대한 지향
 - 부하직원이 상사보다 늦게 퇴근해야 한다. (NO)
 - 가장의 권위는 무조건 존중 받아야 한다. (NO)



과학기술과 사회의 변화

강사 : 이재규 교수

지혜의 소중함 | 잠언 4:7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식의 중요함 | 잠언 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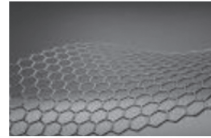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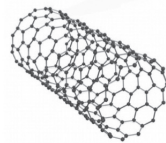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목차

- 과학기술과 4차산업혁명
- 인공지능의 돌풍
 - Game, 음성인식과 자동번역, 영상인식과 VR
 - Robot, 무인자동차와 Drone, Brain Project
- 인공지능 + 인터넷과 사회의 변화
 - 산업의 변화, 고용의 변화
- 인공지능 + 인터넷과 교회의 대응 방안
 - 창조신앙의 보존
 - 교회 운영을 위한 도구

주요 과학기술과 영향

- IT (정보 통신 기술): 인터넷, 스마트폰, AI
 - 효율증대 → 고용 절벽
- BT (바이오 기술) : 유전공학, Genome Project
 - 장수 → 고령화
- ET (에너지 기술) : 탄산가스 배출 저감
 - 기후변화 방지 → 탄산가스 배출 규제
- NT(나노 기술): 요소 기술 (Nano Tube; Graphene)
 - 효율성 증대: 10^{-9} meter



3

4차 산업혁명

- 1차 산업혁명 (1784): 증기기관과 기계
 - 파괴적 혁신 (Disruptive Innovation)
 - 기계파괴 운동
- 2차 산업혁명 (1870): 전기, 대량생산, 분업화
- 3차 산업혁명: IT, 자동생산
-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IoT), 무인자동차, 드론 (Drone), 3D Printing
 - 높은 생산성과 노동 대체
 - WEF: 주요 15개국
 -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710만개의 기존 일자리 감소
 - 한국의 적응 순위: 25위

4

4차 산업 분류와의 차이

- 1차산업
 - 농업, 축산업, 어업, 임업, 수산업 등
- 2차산업
 - 제조업, 광업, 건설, 전력, 에너지 산업 등
- 3차산업
 - 서비스업, 금융, 보험, 유통 등
- 4차산업
 - 지식산업, 정보 배포 및 공유, 정보기술, R&D

5

목차

- 과학기술과 4차산업혁명
- 인공지능의 돌풍
 - Game, 음성인식과 자동번역, 영상인식과 VR
 - Robot, 무인자동차와 Drone, Brain Project
- 인공지능 + 인터넷과 사회의 변화
 - 산업의 변화, 고용의 변화
- 인공지능 + 인터넷과 교회의 대응 방안
 - 창조신앙의 보존
 - 교회 운영을 위한 도구

6

인공지능 (AI) 돌풍 1: 게임

● Google: 바둑

- DeepMind AlphaGo, AlphaZero
 - Deep Learning과 신경회로망

● IBM Watson: 퀴즈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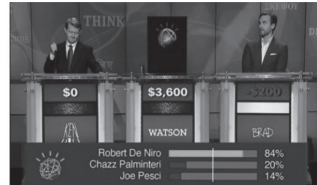
- Jeopardy Quiz Champion in 1997

● ETRI Exobrain (2016)

- 장학퀴즈
- Exobrain: 510점; 2위 사람: 350점

● 투자자문

- Fund Manager (-2.39%) 와 RoboAdvisor (약 2% 후반)의 투자효과 경기 (2016년 1-3월)
- Goldman Sox: Trader (600 → 2명); 개발자 200명
 - 1/4은 개발자 (9,000명); 50만 달러 → 70만 달러



7

인공지능 대표 Google AlphaGo와 인류의 대표 이세돌의 세기의 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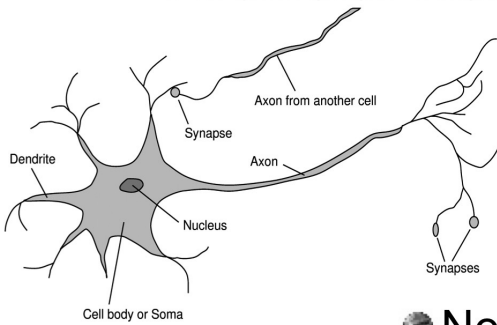


창조주께서 주신 인간의 자연 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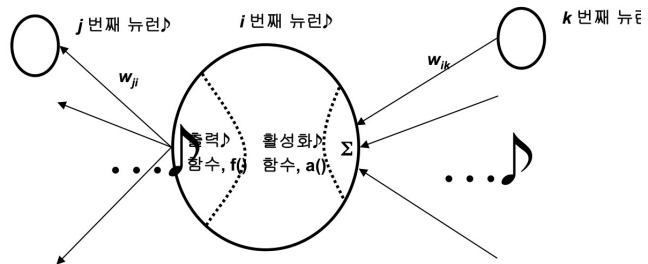
● 1000억개의 Neuron 과 100조개의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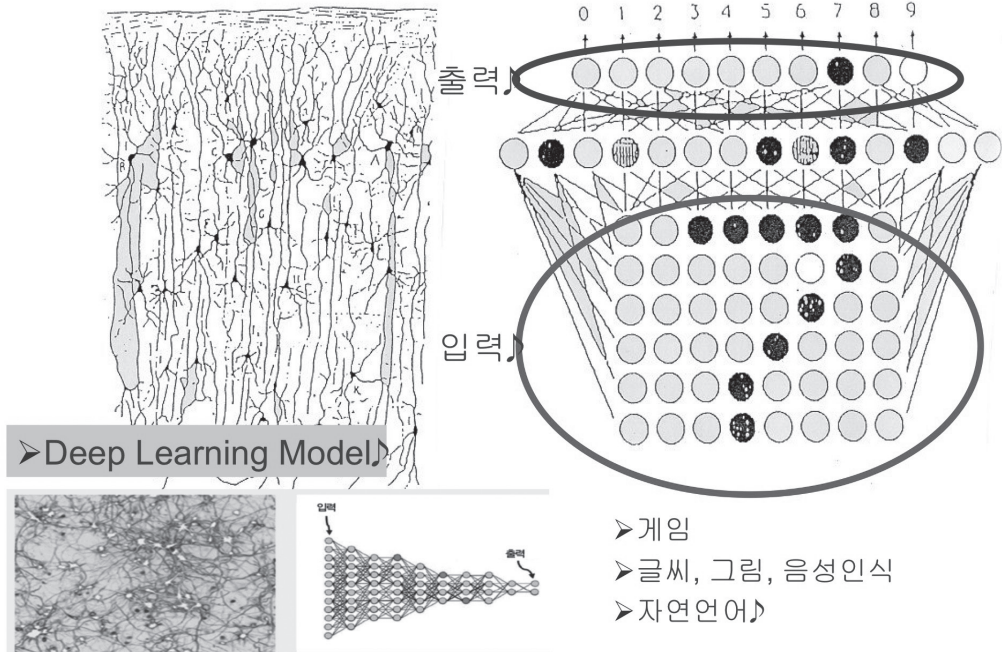
인공신경 회로망의 모형화 Artificial Neural Net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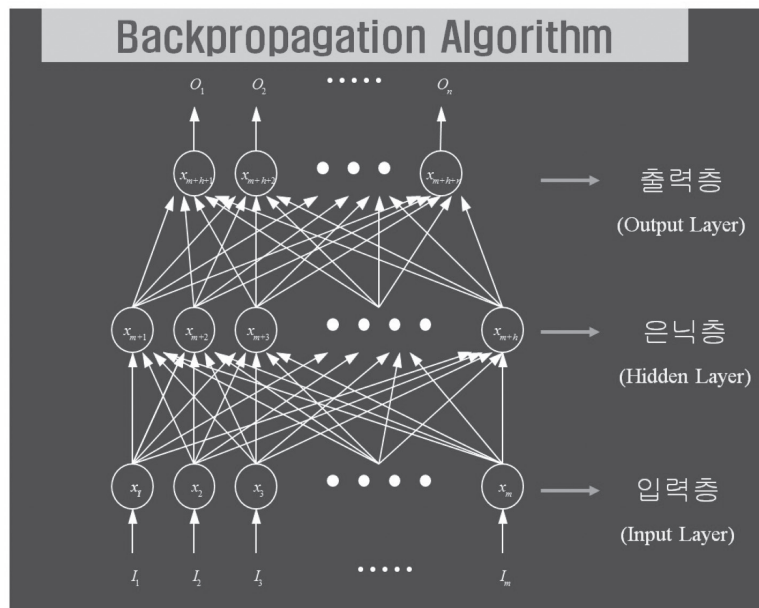
● Neuron의 수학적 모형



인공신경 회로망의 인식모형



신경회로망 학습:가중치의 계산



12

인공지능 2: 음성인식과 자동 번역

● Google

- 자동번역 기능의 획기적 개선: 영어 → 100개 언어 (200명 개발자)
 - 자동 번역의 예
 - 인간 번역사 49/60; Google: 28/60

● Naver Papago

- 네이버 번역기: 텍스트와 음성

● 스마트 폰의 인식

- 삼성전자: 빅스비 (Bixby)
- 애플: Siri
- 구글: Assistant



● Amazon.com

- Elisa: 음성인식 오디오
- Speaker Platform 사업 경쟁

● SKT

- Nugu

15

자동 번역의 잠재력

Google 번역기

번역 즉석 번역 사용 안함

영어 한국어 중국어 언어 감지

한국어 영어 일본어 번역하기

尊敬的Jae Kyu Lee老师, 您好:

非常高兴地通知您, 您被录用为我校正式职工。如果您接受此岗位, 请登录报到系统http://ohr.sustc.edu.cn/hr/base/hr/a.do?

action=getRegisterInfo&entityId=T_SUSTC_NEW_BASE&uid=a38791e4-f47c-45b1-8bfb-1fbed91b9c63。仔细阅读报到须知, 并完整填写信息, 谢谢。

请选用Chrome浏览器和360浏览器“极速”模式登录系统。

报到系统填写注意事项:

1. 请务必填写报到时间, 如有更改, 请登录系统修改
2. 请在报到之前完成填写信息、上传白底照片
3. 请根据《入职指南》准备入职报到材料
4. 报到之前务必提前一周将个人信息在报到系统中填写完整, 报到材料齐全后方能来校报到。

如有疑问, 请联系陈老师, 邮箱 chent@sustc.edu.cn, 电话 0755-88010935。

欢迎您到南方科技大学来工作。

520/5000

Zunjing de Jae Kyu Lee laoshi, nin hao:

안녕하세요, 이재규 선생님.

귀하가 학교의 공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게시물을 수락하면 http://ohr.sustc.edu.cn/hr/base/hr/a.do? action=getRegisterInfo&entityId=T_SUSTC_NEW_BASE&uid=a38791e4-f47c-45b1-8bfb-1fbed91b9c63에 로그인하십시오. 신중하게 등록 지침을 읽고, 정보를 작성, 감사합니다.

Chrome 브라우저와 360 브라우저 "속도"모드 로그인 시스템을 사용하십시오.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는 등록 시스템:

1. 제출 시간을 반드시 기입하십시오. 변경 사항이있는 경우 로그인하여 시스템을 수정하십시오.
2. 등록일 이전에 정보를 입력하고 흰색 사진을 업로드하십시오.
3. "취업 안내서"에 따라 입국 정보를 준비하십시오.
4. 모든 종류의 자료 등록이 학교에 보고된 후, 등록 시스템의 개인 정보가 완성되기 전에 체크인이 일주일 전에 이루어져야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chen (Mr. Chen) 전자 메일 chent@sustc.edu.cn (전화 0755-88010935)에게 연락하십시오.

South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Technolog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 🗨️ < 수정 제안하기

16

인공지능 3: 영상인식과 VR

- **Stanford University: Deep Learning Project**
 - By Stanford University Andrew Ng and Google (2012)
 - 16,000 processors, 10억개 이상의 Neural Network
 - YouTube의 천만개 이상의 비디오중 고양이 인식
- **IBM**
 - 의료 영상 판독: 정확도 96% (2016)
 - 원격의료 진단
- **아산병원: 인공지능 의료 영상 사업단**
 - 폐, 간, 심장질환 영상 판독 지원
- **교통 상황 등의 인식기능 연구필요**
 - 무인 자동차, 교통신호등
- **Facebook: Tagging Services (얼굴 인식), Augmented Reality, VR**
 - Social VR Demo – Oculus Connect 2016
 - <https://www.youtube.com/watch?v=YulgyKLPt3s>

17

인공지능 4: 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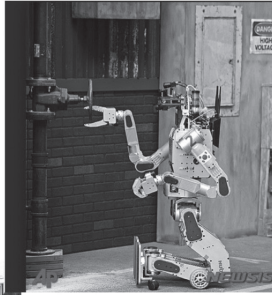
- **제조: 용접, 조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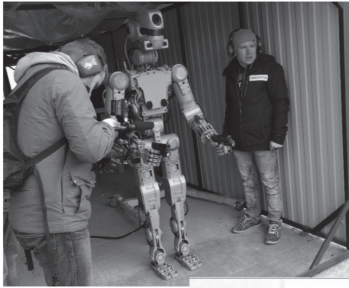
- **물류센터 (Amazon.com의 KIVA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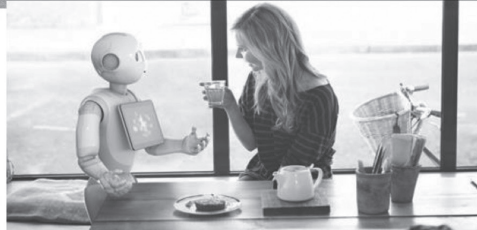
- 재난 구조:
 - Hubo: 세계 1위



- 공격 무기: 러시아



- 반려자



19

인공지능 5: 무인 자동차와 드론

- Google
 - 무인 자동차 (Self-Driving Car)
 - 10년 이내 상용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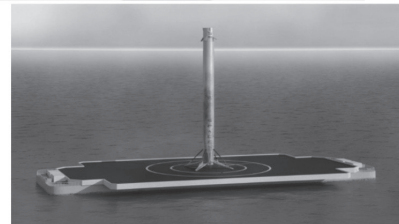
- KAIST EureCar
 - 세계 2위
 - 도로 주행 실험 (2017년)

➔ 안전증대, 사람을 대체

- Amazon.com
 - 물류센터와 배달의 자동화



- 재활용 로켓
 - Amazon
 - Space-X



인공지능 6: Brain Project

- Brain Initiative (미국)
 - 10년간 30억 달러
- DARPA SyNAPSE
 - 2009년: Compass (원숭이 뇌의 모방)
 - 2014년: 인간의 뇌 구조 TrueNorth 발표
 - 100만개의 뉴런, 2억5천만개의 시냅스
- 뇌속의 Chip
 - 자연 두뇌와 인공 두뇌의 통합
- 삼성전자 (한국)
 - 서울대, KAIST등과 뇌신경 닮은 칩 공동개발

21

선진국의 Brain Projects

- EU: Human Brain Project
 - 신경정보학, 의학(진단, 치료법 발견), 컴퓨팅
 - 10억 Euro (2013년; 10년간)
- 일본: 로봇신전략 (2015), AI 미래상 연구회
- 중국: China Brain (2015.3)
 - 산업용 로봇, 국방의 참여 촉구 (바이두 회장 양회에서)
 - 언어, 그림, 영상, 무인 운전, 인공제어 중심
- 한국: AI 정부 R&D 380억원 (2017년도)
 - ETRI Exobrain (2013년, 10년)
 - 연간 80억원 * 10년
 - 강한 AI: 인간 모사형
 - 약한 AI: 자율학습, 문제해결

22

목차

- 과학기술과 4차산업혁명
- 인공지능의 돌풍
 - Game, 음성인식과 자동번역, 영상인식과 VR
 - Robot, 무인자동차와 Drone, Brain Project
- 인공지능 + 인터넷과 사회의 변화
 - 산업의 변화, 고용의 변화
- 인공지능 + 인터넷과 교회의 대응 방안
 - 창조신앙의 보존
 - 교회 운영을 위한 도구

사람을 대체한 기계들: AI 만의 문제 아니다

- 서비스시간 연장, 접근성, 비용절감, 생산성

➢ 금융



➢ 유통



➢ 교통



Amazon.com의 혁신의 예

- Amazon.com: Online Bookstore
 - 소형 서점이 없어짐
- eBook과 audio book 이 인쇄본을 능가함
 - Kindle의 생산 판매
- 온라인 백화점
 - Walmart를 능가함
- 무인 물류센터
- O2O (Online to Offline) 매장 설치
 -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무인 오프라인 매장 설치
- 자율주행 자동차와 Drone을 이용한 무인배달 연구
- Reusable 로켓: Space X와 경쟁
 - 공공 부문의 파괴적 혁신과 민영화

25

산업구조와 고용 변화의 예

- 무인 자동차
 - Navigator와 Uber와 결합
 - 마지막 2%의 완성을 위한 비용
 - [변화] 택시, 대리운전의 대체효과
 - ➔ 렌트 확대와 공유경제 ➔ 주차 문화의 변화
 - ➔ 자동차 산업의 수요감소 ➔ 환경 보호
- 나이키 신발
 - 3D Printing와 원격 맞춤형 주문
 - Robot의 맞춤형 제작: 저렴한 노동력의 필요성 저하
 - 개인적 신발규격을 등록 하는 창구는 필요
 - [변화] 고객의 만족 증대, 고용의 변화,
 - ➔ 시장 근접한 공장의 위치 ➔ 제조업의 재배치

26

인공지능에 의한 고용변화

증가

- ▶ 데이터 분석
- ▶ AI 신산업
- ▶ 지능형 서비스
- ▶ 효율 증대
- ▶ 창의성
- ▶ 디자인

AI와 로봇으로 대체가 힘든 직업

- 1 화가 및 조각가
- 2 사진작가 및 사진사
- 3 작가 및 관련 전문가
- 4 자회사 직원이 및 인주어
- 5 애니메이션 및 만화가
- 6 무용가 및 안무가
- 7 가수 및 성악가
- 8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
- 9 공예원
- 10 예능 강사
- 11 세로디자이너
- 12 국악 및 전통 예술인
- 13 감독 및 기술감독
- 14 배우 및 모델
- 15 세트디자이너
- 16 시나리오라이터
- 17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 18 기타 음악서비스 종사원
- 19 디스플레이 디자이너
- 20 촬영감독
- 21 대학교수
- 22 미술사 및 기타 문화 예술 관련 종사자
- 23 출판물 기획편집자
- 24 큐레이터, 문화재보존원
- 25 영상·녹화 및 편집기사
- 26 초등학교 교사
- 27 촬영기사
- 28 물리 및 직업 치료사
- 29 섬유 및 염료 시험원
- 30 영상장사사 및 기타 치료사

AI와 로봇에 대체될 확률 높은 직업

- 1 본관리원
- 2 정육원 및 도축원
- 3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조립원
- 4 청원경찰
- 5 조식생산사무원
- 6 불꽃이동장치조작원
- 7 관리사무원
- 8 완강비행원 및 제할당도수거원
- 9 세차 관련 기계조작원
- 10 택배원
- 11 과수확정채취원
- 12 위험 및 건강시료관련 서비스 관리자
- 13 주유원
- 14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 15 건축노조공
- 16 대표원 및 복귀차량원
- 17 청소원
- 18 수급원
- 19 실근원
- 20 도공기 및 금속분무기 조작원
- 21 운차 및 임대차료 생산(기계조작)
- 22 국식식품채취원
- 23 건설 및 경인 단순 종사원
- 24 도주교사 및 기타 교사
- 25 시멘트·석유 및 콘크리트생산직
- 26 용접도움말(메이빙사이드)
- 27 주시 관리원 및 안내원
- 28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 29 세차 제작 및 시공원
- 30 직류·이체류·낙동조기공

감소

- ▶ 단순작업
- ▶ 단답형 문제
- ▶ 반복적 문제
- ▶ 지식 수평이 낮은 문제

고용 전략

- ▶ 증가 > 감소
- ➔ 수출 산업화
- ▶ 증가 < 감소
- ➔ 재교육 재배치

27

AI의 잠재력과 한계점

● 문제 유형의 한계

▶ 불확실성이 내재된 문제(Generic uncertainty)

- 비반복적 예측 지식의 한계점

IMF, 미국금융위기, 석유가격 하락, 한국의 핵전쟁과 통일 등에 대한 예측

▶ 비정형 문제(Unstructured problems): 문제의 정의

▶ 주관식 해답(Creative synthesis): 단순 기사작성과 창작적 해답

▶ 다목적 의사결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 가치관에 근거한 문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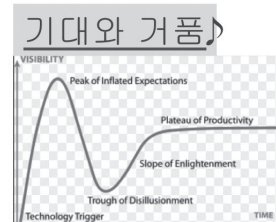
▶ 지혜를 요하는 판단

● 경제성: 지식 습득과 유지의 비용 대비 효과

● AI의 악용으로 인한 위험의 증대와 안전 보장

● AI의 남용에 대한 법적 윤리적 한계

➔ 사이버 범죄: 밝은 인터넷의 환경 조성 필요



28

목차

- 과학기술과 4차산업혁명
- 인공지능의 돌풍
 - Game, 음성인식과 자동번역, 영상인식과 VR
 - Robot, 무인자동차와 Drone, Brain Project
- 인공지능 + 인터넷과 사회의 변화
 - 산업의 변화, 고용의 변화
- 인공지능 + 인터넷과 교회의 대응 방안
 - 창조신앙의 보존
 - 교회 운영을 위한 도구

29

신학적 도전

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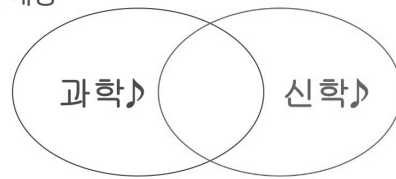
소름끼치는 직관과 추론, 우리 알파고의 영혼을 보았다

- 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34577.html
 -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에서 사람들이 목격한 건 혹시 ‘알파고의 영혼’ 이 있을까?
 - 영혼도 계산의 결과물로 얻을 수 있는 거라는 끔찍한 현실을 묵도한 건 아닐까?
- 유발 할라리, 사피엔스, 500만부; 호모 데우스
- 인공위성과 천체물리학: 태초의 우주
- 신앙관: 창조신앙과 창조과학의 재정립 필요
 -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창조신앙을 잃게 할 것인가?
 - 자연 지능의 오묘함과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30

역사의 교훈: 과학과 신학의 영역

- 1543년 코페르니쿠스
 -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지동설)
 - 1616년: 로마 카톨릭교회의 금서
- 1610년 갈릴레이
 - 천체 망원경 발명
 - 1633년 종교재판, “그래도 지구는 돈다”
 - 1687년 뉴턴: 만유인력과 조수간만의 차 해명
- 1859년 다윈의 종의 기원
 - 진화론
 - 유전자와 생명공학



-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과학적 기반 위에 설명할 것인가?
 - 창조과학의 현주소와 성경의 해석

31

기술 발전이 교회에게 주는 교훈

- 초대교회와 공통적으로 간직해야 할 점
 -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
 -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신앙
- 인터넷 시대의 온누리교회: AMA (O2O 교회)
 - 40개의 교회의 동질성 유지
 - 인터넷을 이용한 교회간의 글로벌 의사 소통으로 동질감 증진
 - 디지털 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공유; 그리고 한국교회와 나눔
 - 차세대를 위한 수직 선교
 - 젊은이들을 찾아가는 온라인 선교와 교회로 모임의 조화
 - 온라인 콘텐츠를 한국 교회에 나누어 주는 인프라 교회
 - 온라인 세계 선교와 현지선교
 - 지역 교회의 개념을 뛰어 넘는 선교 공동체의 규모가 필요함
 - 현지 선교사역과 CGN/인터넷 선교의 보완적 융합선교
 - 인프라를 제공하는 대형교회가 필요한 시대
 - 지역교회의 한계를 넘어선 온누리교회의 소명이자 기회이다
 - 시대의 변화를 대비해 나가는 끝없는 젊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32



한국 교회사와 장로교회

강사 : 임희국 교수¹⁾

I 1919년 서울 3.1운동을 주도한 기독교 지도자들

우리나라에서 거국적(擧國的)으로 민족의식이 또렷하게 드러난 때는 1919년 3월 일제의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빼앗긴 국가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일어난 3.1운동 기간이었다. 이 만세운동에 전국의 교회들이 적극 참여했다. 그 이후, 1920-30년대에 한국 교회는 매우 다양하게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방면으로 민족의 자결과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이것을 오늘의 용어로 해석해서 표현하면 ‘교회의 사회적 책임’, ‘교회의 사회봉사’(디아코니아, diakonie)였다.

1. 3.1운동 진행의 개요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합병이 되었고, 그때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는 일본제국의 식민지배아래 있었다. 그 식민지배는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 그리고 문화적 유린 등이었다. 그런데, 1919년 3월 1일부터 약 2개월 동안 민족의 독립을 위해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거대한 시위가 일어났다. 이 기간의 시위는 국내에서만 1,542회 일어났고, 당시 인구의 10%가 넘는 2백 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가했다. 이것이 소위 1919년 ‘3.1운동’이었다.

1919년 당시 한국의 인구는 1,600만 명이었고 이 가운데서 기독교인(개신교)은 약 29만 명이었다(전체 국민의 1.8%). 이렇게 적은 무리의 기독교인이 3.1운동 시위 주도자의 30%를 차지했다. 또 시위 도중에 체포당하고 투옥당한 사람의 20%가 기독교인이었다. 전국의 마을과 장터에 3.1운동의 격문이 붙었고 <독립선언서>가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마을 단위의 교회가 전국으로 통하는 연결망(개 교회→지역 시찰회→노회→총회)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이 가능했다. 또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서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였다.

1) 이 글은 필자가 작성한 논문에서 일부 가져왔습니다. 임희국, “기미년 서울 3.1운동 <독립선언서>의 평화사상과 기독교의 평화”, 『교회와신학』, 제80집(2016): 167-190.

2. 서울의 ‘독립만세시위’²⁾

서울 독립만세시위의 추진 세력은 학생들이었다. 그 세력의 핵심은 전문대학의 기독교 재학생들이었다. 예컨대 연희전문대학의 김원벽, 세브란스의전의 김문진·이용성, 보성전문대학의 강기덕, 경성의전의 김영기·한위건 등이었다. 이 학생들에게 시위 동력을 불어넣은 사람은 박희도였다. 일본 동경 YMCA에서 거행된 유학생들의 독립선언식(2월8일) 소식을 들은 그는 2월 10일경부터 강기덕·한위건·김원벽·주익 등 서울 YMCA에 드나들던 학생들과 독립만세시위를 모의했다. 또한, 세브란스병원의 이갑성도 2월 12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배동석·김문진·김원벽·한위건·김영기·윤지영 등과 회합을 가졌다.

김원벽과 강기덕이 다시 박희도와 만나서 의논하여 전문대학들의 활동 책임자를 각각 선정했고, 또 이들은 2월 20일 승동예배당에서 학생간부회를 소집했다. 이갑성이 2월 28일 독립선언서 1,500매를 강기덕에게 전달했다. 그 다음, 강기덕과 김원벽이 이필주 목사 집에서 중학교 학생대표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나누어주었고, 승동예배당에서 전문대학 학생대표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나누어주었다.

3월 1일 제1차 독립만세시위가 학생 주도로 일어났다. 오후 2시경 탑골공원 팔각정에 3~4천명의 학생들이 운집했다. 정재용(경신학교 출신)이 <독립선언서>를 꺼내 단상으로 올라가서 낭독했다. 이어서, 탑골공원 정문을 나선 학생 시위대가 동과 서로 나뉘어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가행진을 시작했다. 고종의 장례 참석차 시내에 있던 시민들과 상경 지방민들이 시위에 합류했다. 시위대의 한 편은 종로-남대문-서소문-정동-대한문-광화문-서대문 합동- 장곡천정- 조선은행- 진고개로 향하다가 일본 헌병과 경찰의 진압으로 해산되었다. 시위대의 또 한 편은 종로-돈화문-총독부의원을 거쳐서 해산되었다. 이날 연행된 학생들은 134명이었다.

3월 4일에 서울의 전문대학과 중학교의 학생 대표들이 배재고보 기숙사에 모여서 제2차 시위를 모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원벽과 강기덕이 시위대 지휘권을 부여받았다. 그 이튿날 3월 5일 오전 8시 남대문광장(서울역 앞)에서 제2차 독립만세시위가 또 한 번 학생 주도로 시작되었다.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남대문을 향해 행진했다. 시위대의 한 편은 남대문시장-조선은행-종로 보신각으로 행진했고, 또 한 편은 남대문-대한문-무교동-보신각을 향해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군중이 1만 명으로 불어났다. 이날 75명이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2) 송현강, “서울지역의 기독교 3.1운동”, 『기독교사상』 (2018.11), 109-119.

3. 서울 <독립선언서> 작성을 주도한 기독교 지도자들 : 박승봉, 이상재, 이승훈

서울의 3.1운동은 1919년 1월에 안국동(북촌)에 소재한 안동장로교회의 장로 박승봉의 자택(계동 135번지)에서 기독교 지도자들과 천도교 지도자들이 모여 의논하면서 발단되었다.³⁾ 박승봉은 맨 먼저 연동장로교회 교인이자 YMCA지도자 이상재를 만나서 이 문제에 관하여 협의했다. 그런데 이 일이 전국에서 거대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두 사람은 서북지역에 있는 이승훈을 서울로 오게 해서 함께 협의했다. 이렇게 기독교지도자 세 사람은 천도교 지도자들을(송진우 등) 만나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평화적 시위를 일으키기로 결정했다. 이때가 1월 상순이었다. 불교 지도자 한용운도 합류했다. 서울 3.1운동을 위한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최남선에게 작성하도록 했다. 그가 작성한 문장을 박승봉·이상재·이승훈이 검토하고 교정했다.

박승봉은 조선시대 임금인 순조의 외가 직계 자손으로 태어났다. 세도가 집안이었다. 1882년에 우리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서양의 미국과 외교조약을 맺었다(조미조약). 이어서 정부가 미국에 외교관을 파송했을 때(1885), 박승봉은 주미 외교관인 참사관으로 워싱턴에서 근무했다. 4년 뒤에 귀국한 그는 정부의 고위직 관료(공내부 협판)로 부임했다. 그는 1907년 이준이 고종황제의 밀서를 품에 안고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가는데 지원했다. 대한제국을 향한 일제의 식민통치 야심을 천하에 폭로하는 밀서였다. 그러나 그 일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준은 거기에서 자결하였고, 박승봉은 중앙정부에서 쫓겨나 서북지방 영변으로 좌천되었다. 이 위기상황에서 그는 신식(서양식) 기독교학교설립에서 나라의 희망을 발견했다. 그가 영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부자들을 설득하여 기독교학교의 설립을 독려했다. 예수를 믿게 된 그는 1909년 북촌 안국동에서 안동교회를 창립했다. 그의 뒤를 이어 북촌의 양반 민준호, 한필상, 홍운표, 유창겸, 서병철, 김시제, 안기선, 이주완, 박주완, 현채, 조종만 등도 안동교회에 등록했다. 그 이후로도 박승봉은 기독교학교 설립운동을 지원했고, 1919년 서울 3.1만세운동을 주도했다.⁴⁾

3) 전택부, 『토박이 신앙산맥. 한국교회 사도행전』, 제1권 (대한기독교출판사, 1977), 90-91.

4) 그러나 박승봉은 일제의 식민통치 자문기구인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찬의로 지냈고, 1921년 중추원 개편 이후에는 참의로, 그리고 함경남도과 평안남도의 참여관으로 지냈다. 이러한 행적에 근거하여서, 박승봉은 「일제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1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IV-6: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415~423)에 관련 행적이 자세히 채록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5) 이상재의 옥중 친필 기록인 『공소산음(共嘯散吟)』이 전해온다. 이 기록은 소위 “옥중 기독교(개신교) 개종자”로 불리는 이상재, 이원근, 홍재기, 김정식 등이 감옥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사실을 파악해 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공

이상재는 구한말대한제국의 고위직 관료(학부참사관 겸 외국어학교 교장, 학부아문 참의, 학무국장)였다. 그는 ‘독립협회’의 결성과 ‘만민공동회’를 주도했다. 그는 미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기에 국내와 국제 정세를 꿰고 있었다. 1902년 6월에 역모행위(“개혁당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독립협회의 이상재를 비롯한 김정식(경무관)·안국선(조경군수)·유성준(가선대부, 내무경무국장)·이원궁(대제학, 군국기무처의원)·홍재기(중추원의관, 총리대신 비서, 개성군수) 등이 체포되었다. 이들이 도모했다는 역모행위란 조선협회를 조직하여 독립협회를 다시 일으키고 또 일본으로 망명한 부일당과 협력해서 정부를 전복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사범(정치범)으로 의금부 감옥에 수감되었다.

이 수감자들이 옥중에서 개신교에 입교하였다.⁵⁾ 그런데 1904년에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게 패하자, 국내의 친러(수구)세력이 몰락했다. 이에 수감자들이 석방되었다. 이상재는 곧바로 의금부 감옥을 자주 방문한 선교사 게일(J. S. Gale)을 찾아갔다. 게일은 종로5가 장로교회 연못골 예배당(연동교회)의 담임이었다. 이상재와 함께 의금부에 수감되었던 김정식·안국선·유성준·이원궁·홍재기 등도 연동교회 교인으로 등록했다.⁶⁾

이승훈은 1907년 박승봉의 지원으로 오산학교를 설립했고, 1910년 기독교(장로교회) 신앙인이 되었고, 1919년 3.1운동에서 민족대표로 활동했다.

이렇게 기독교 지도자 세 사람이 서울의 독립선언서 작성에 참여한 사실에 미루어 짐작컨대, 이 독립선언서에 기독교의 신앙정신이 반영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⁷⁾

II 서울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3.1운동의 정신

1. 민족 자결

서울 독립선언서에는 1914년에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일어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었다. 즉, 러시아 혁명, 독일 혁명, 약소 민족들

소산음은 “함께 모여 읊고 흩어져 홀로 읊미하다”는 뜻이다. 이 기록은 이상재가 의금부 옥사에 수감된 기간(1902-1904)에 지은 논설문을 비롯해서 함께 갇힌 동료들과 주고받은 글을 묶은 필사본이다. 『월남 이상재 선생 옥사기록(獄舍記錄) 공소산음(共嘯散吟)』, (숭실대학교기독교박물관, 2012)

6) 이 역사적 사건을 이능화(이원궁의 자제)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의금부 감옥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인물들은 “官紳信敎之始”(관리신분에서 기독교(개신교)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의 시초)이다. 『연동교회 애국지사 16인 열전』, 편저자 고춘섭, 기획 연동교회역사위원회, (도서출판 카이로스, 2009), 97.

7) 최남선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는 가운데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전해 온다. 참조, 崔正善, 『南滿 傳道の 先驅者 崔聖柱 牧師』, (學一出版社, 2000), 66.

의 독립,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창한 민족 자결주의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서울 독립선언서는 지금이야말로 세계의 변화와 더불어 한국의 국권이 회복되는 “세계 개조” 곧 세상이 변혁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변혁시킨 유럽 제1차 세계대전(1914-18)은 이 전쟁에 동원된 병력과 군수물자에서 사상 초유의 대규모였다. 4년 4개월 동안 진행된 전쟁에서, 28개국 약 8억 인구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렸다. 전쟁에 투입된 병력이 약 7천 만 명이었고, 이 중에서 사상자가 약 3천 만 명이었다. 유럽이 초토화되는 어마어마한 화력이 퍼부어졌다. 이 전쟁을 종결짓는 결정적인 계기가 1917년에 있었는데, 3월에 미국이 참전했고, 또 10월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다. 이 혁명에서 선포된 민족 자결의 원칙이 당시 식민 지배를 받던 약소 국가들의 국민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 선언이 적용될 지역은 대체로 제정 러시아의 지배 아래 있던 유럽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이었는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식민 지배를 받던 민족들 역시 덩달아 독립을 기대 하게 되었다.

이 전쟁이 독일의 패전으로 기울어지던 때, 이 나라에서도 (러시아혁명의 여파로) 혁명이 일어났다. 1918년 11월 3일 키일(Kiel)에서 일어난 수병반란으로 혁명이 시작되었다. 혁명이 전국 각 지역으로 파급되어 노동자와 병사대표 중심의 (국민) 평의회가 성립되었다. 11월 9일 독일 사민당(SPD) 소속 스파르타쿠스단과 혁명적 노동자 계급이 베를린을 장악했고 그 뒤를 이어서 정권을 전복시켰다.

이렇게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국제 정세의 변화가 서울의 독립선언서에 반영되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독일혁명이 1919년 2월 일본 동경에서 작성된 독립선언서에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⁸⁾ 독일혁명 또한 식민 지배를 받는 민족들에게 민족의 자결을 각성시켰다는 뜻이다. 그리고 동경 독립선언서가 서울 독립선언서에 영향을 끼쳤다.⁹⁾

서울 독립선언서는 1910년대의 국제 정세변화에 동승하기 위해 한민족의 자결을 세계 앞에 선언했다. 민족 자결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리인 동시에 세계 각 민족에게 해당되는 보편 원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족 자결은 “인도주의” 곧 정의(正義)와 인도(人道, 사람의 길)에 입각한 천부(天賦)의 권리이므로, 이에 한민족이 일제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는 독립은 인도주의에 따른 타당

8) 강재언, 『근대 한국 사상사연구』, (한울, 1983), 255.

9) 동경 독립선언서에는 한국의 독립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것이라는 굳은 결심이 선포되었다. 이 선언서는 본래 독립국이었던 한국을 침략한 일제의 잘못된 행위와 식민지배 10년(1910-19)의 학정을 소상하게 고발했다. 일제가 한국을 강제로 병합한 명분은 동양평화였는데, 최근에 일어난 러시아 혁명과 중국 상황의 개선 그리고 국제기구(국제연맹)의 결성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한일 강제병합의 명분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언서는 조선(한국)민족의 자결권을 요구했고, 만일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엔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 경고하고 혈전(血戰)불사도 선포했다.

하고도 정당한 주장이라고 선언했다. 인도주의는 인간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파악하면서 세계 인류의 안녕을 추구하는 정신인데, 이 정신에 상응하여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는 한국이 독립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일제가 개오(改悟, 회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 세계 평화

한민족의 독립과 자결이 동양평화를 이루어내고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은 구한말 시대의 “삼화”(三和)사상을 계승한 것이었다. 삼화는 한국, 중국,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루는 화평을 일컫는 것이었고 또 그 화평은 사람의 화합 곧 ‘인화(人和)’를 바탕으로 이룬다는 사상이었다.¹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서양 제국주의가 아시아로 세력을 뻗쳐오던 왔으므로, 이때의 삼화사상은 19세기말 서양 세력의 아시아 진출 곧 서세동점(西勢東漸)에 대한 동북아시아 3개국의 경각심과 경계를 촉구하였다. 이 3개국이 공존상재(共存相在)하는 가운데서 연합하여 서양 세력을 방어하자는 논리였다.

그러나 일본이 청일전쟁(1894), 러일전쟁(1904), 한일합병(1910) 등을 거치면서 강력한 제국으로 부상했고 계속 더 나아가서 서양 제국주의 세력에 편승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중국-일본의 삼화연대를 통한 동양평화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졌다.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전의 일본은 동북아시아 3개국의 동양평화(연대)로 서세동점을 방어하고자 했는데, 그러나 이제 강대국이 된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패권과 제국주의 팽창정책을 정당화하는 동양평화를 만들어냈다.¹¹⁾ 이렇게 ‘앞선 세대’의 동양평화와 ‘그 다음 세대’의 동양평화는, 그 추구하는바 제국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동일한데, 그러나 거기에 담긴 내용은 완전히 달랐다. 이 과정 속에서 일본은 러일전쟁의 명분으로 “한국의 독립과 극동의 평화를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공포했다.¹²⁾ 그러나 6년 뒤에 한일합병을 통해 일제가 한국을 식민통치함으로써 이 공포는 기만(欺瞞)이요 사기(詐欺)였음이 판명되었다. 한 편, 한국이 본래 추구한바 동북아시아 3개국 연대에 바탕을 둔 동양평화는 한국-중국-일본의 개체존중과 상호평등을 통한 공존관계를 뜻하고, 또 3개국의 세

10) 강재언, 『조선의 양(攘夷)과 개화』, (平凡社選書, 1977), 193, 260.

11) 장인성, “근대 한국의 평화관념: 동양평화의 이상과 현실”, 『한국, 일본, '서양』, 와타나베 히로시, 박종석 공역, (아연출판부, 2008), 56-57.

12) “윌슨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1919년 2월 20일, 중국 북경); 소안련(소안문) 수집, 김윤찬 보관, 김혜성 옮김, 『삼일운동과 일제의 박해. 3.1운동 당시 외국 선교사들이 목격, 보고한 참혹한 실상』, (FCJC출판사, 2012), 17-20.

력균형과 상호연대를 통해 유지되는 평화를 뜻한다. 그렇다면 동양평화는 동북아시아 3개국의 자주독립이 보장되어야만 유지되는 것이다. 이 평화론은 청일전쟁 이후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널리 통용되었던바 한국이 모색하고 추구하던 동양평화였다. 이 논리는 또한 국가폭력이나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유교의 규범과 결부되어 있다.¹³⁾

그러나 일본은 청일전쟁(1894)을 일으켜 동북아시아 지역의 동양평화인 정족안녕을 파괴했고, 10년 뒤에는 러일전쟁(1904)을 통해 유럽 제국주의 대열에 합류했으며, 그리고 한일합병(1910) 어간에는 약육강식의 사회진화론 국제질서에 편승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제국이 내세운 동양평화는 평화의 옷을 걸치고 그 옷 속에 살상 무기를 감춘 위장이었다. 이 무장평화론은 계속 패권주의 세력팽창을 추구하고 또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힘의 논리에 의지했다. 그러하기에, 약자를 힘으로 누르고 식민지 국민을 무력으로 통제하여 입을 다물게 하고 사회를 조용하게 만들어 놓은 평화였다.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평화라고 속인 포장이었다.

한일합병 7년 후, 국제질서가 다시 한 번 뒤집히는 계기가 찾아왔는데, 그것이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제1차 세계대전 마지막 시기에 러시아와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이 혁명은 제국주의 옛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변화를 통찰한 3.1운동 참여자들은 “위력의 시대가 지나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다”는 ‘기운’(氣運)을 파악하면서 구한말의 삼화사상과 정족평화론을 새롭게 구성한 한국 민족의 자결을 주장했다.

III 3.1만세시위 직후,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한

기독교 지도자들

서울 독립선언서가 선포한 민족의 자결은 일제의 동양평화론(=무장평화론)과 크게 충돌했다. 식민지 한국은 정의인도의 민족 자결을 선언했고, 식민지배를 하는 제국주의 일본은 약육강식 힘의 논리로 대처했다. 일본의 일방적인 무력진압으로 독립만세시위가 종결되었다. 그러나 국내외 여러 곳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 수립을 모색했고, 이것이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으로 통합되었다. 또한 국내에서도 교회들이 민족 자결을 위한 ‘실력양성’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13) 정족평화론이 유교 규범에 결부된 한국의 평화사상이기에, 장인성에 따르면, 서양의 평화사상이나 기독교의 평화사상과 쉽게 결부될 수 없다고 한다.

디아코니아 운동이 일어났다: 물산장려운동(자급자족, 상공업의 진흥, 국산품애용), 농촌운동(1928-37년), 문맹퇴치운동, 야학과 강습소운동, 위생운동, 질병(한센씨병, 결핵)퇴치운동, 절제운동(금주, 금연), 공창폐지운동 등이 일어났다.

1919년 3.1만세시위 직후에, 국내외에서 독립을 선언했으니 당연히 정부를 조직해야 한다는 중론이 일어났다. 이에 여러 지역에서 각각 정부수립이 착수되었다.¹⁴⁾ 이 상황에서 신한청년단과 동제사의 주도로 3.1운동 주동자들 다수가 상해로 속속 이주해왔다. 상해 프랑스 조계 내에 ‘독립임시사무소’가 설치되었다. 총무로 선임된 현순 목사가 세계 각국 공관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고 또 국내의 독립운동 상황을 중국 내 각 신문사와 통신사에 제공했다. 이 독립임시사무소가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탄생시키는 또 다른 모태가 되었다.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기초는 ‘신한청년당’과 독립임시사무소였다. 현순은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국제 여론을 청취했고 또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선언서를 전달할 임무를 부여받아서 2,000원의 경비를 가슴에 품고서 상해로 왔다. 이 금액이 초창기 임시정부 활동(외교 홍보)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했다. 임시정부의 활동자금은 대다수 국내 교회, 교인, 그리고 미국 기독교계의 모금으로 걸렸다. 상해의 한인교회는 임시정부가 조직될 때, 조직의 결성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일, 구성원을 결속하고 조직을 체계화하는 일,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일을 담당했다. 상해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정신적 구심체였던 한인교회는 임시정부수립의 준비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계속해서, 4월 1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회의(의정원)가 29명의 대표적 독립운동가들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는 다수의 기독교인 인사들이 참석했다.¹⁵⁾ 또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도 기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참여했다. 상해한인교회 담임 김병조 목사(의정원 의원과 사료편찬위원), 송병조 목사(임시정부의 재정총장), 손정도 목사(의정원 의장), 정인과 목사(의정원 부의장), 이원익 목사(의정원 의원과 사료편찬위원), 조상섭 목사(학무총장과 교통총장), 현순 목사(임시정부 외무차장), 장봉 장로(의정원 의원과 거류민단장), 여운형 전도인(의정원 의원), 선우혁 집사(임시정부 교통차장), 한진교 집사(의정원 의원), 서병호 집사(의정원 의원과 신한청년당 이사장), 이승만(임시정부 국무총리), 안창호(임시정부 내무총장), 김규식(임시정부 외무총장), 이동휘(임시정부 군무총장), 유동설(임시

14) 그 당시 임시정부 수립을 발표한 지역이 일곱 곳이었다. 이 가운데서 네 곳은 이름뿐이고 실체가 없었으며, 실체가 있는 곳은 서울의 ‘한성임시정부’와 블라디보스톡의 ‘국민의회’에서 수립한 ‘노령정부’, 그리고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였다. 이현희, 『대한민국임시정부사』, (집문당, 198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론 10: 대한민국임시정부』, (민족문화사, 1992)

15) 기독교지도자들의 명단을 다음의 글에서 가져왔다. 김형석, “상해거류 한인기독교도들의 민족운동”, 金行湜(편저), 『民族代表 臨政要人 一齊 金秉祚 評傳』, 社團法人 韓民族獨立精神思想研究會, (도서출판 우삼, 2002): 245-276(255-256).

정부 참모부총장), 신익희(임시정부 내무차장), 조소앙(임시정부 비서장), 김순애(대한애국부인회장), 그리고 김철(임시정부 군무장(軍務長)) 등이 각자의 역할을 담당했다.

IV 성찰

3.1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인들의 신앙유산을 오늘의 교회 현실에 조명해보면, 한국 교회는 1960년대 중반이래로 산업화 시대의 '경제성장'에 상응하는 '교회성장'을 추구했다. 이때부터 향후 30년 동안 한국의 교회는 세계 기독교의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교회성장은 대도시(서울중심) 교회의 교인 증가와 재정 확대가 주류였다. 그 성장의 결국은 '내 교회' 성장(교인 증가, 재정 확대, 대형건물)에 만족하게 했다. 그 성장은 저 자신도 모르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교회 성격을 형성하게 했다. 그 결과, 더불어 상생(相生)하는 이웃이 결핍된 교회, 또 지역/마을에서 고립되어 마치 외딴 섬처럼 존립하는 교회가 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교회는 다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이웃(민족, 사회, 인류)을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치합니다.





사회선교와 공흥사역

강사 : 노규석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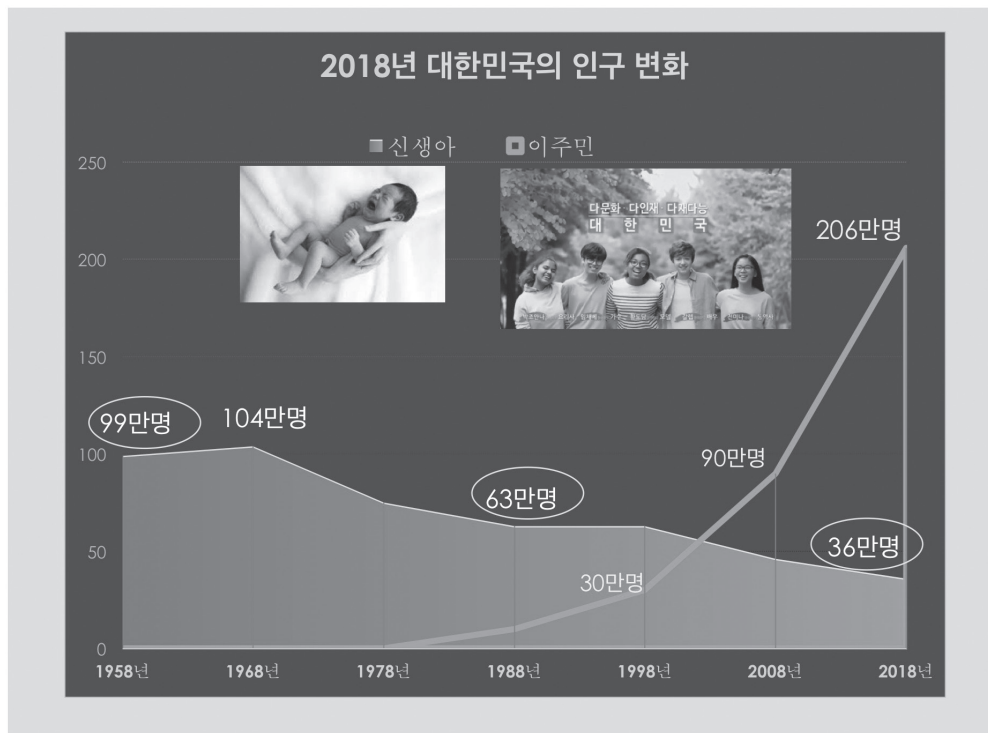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 마태복음 5:13-16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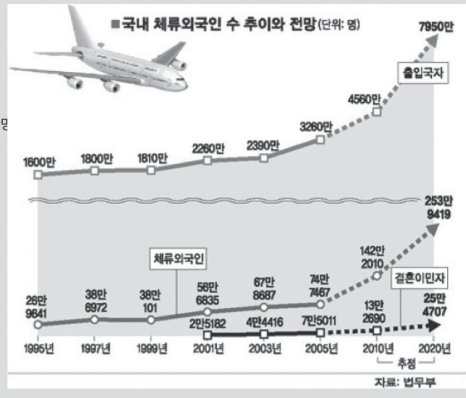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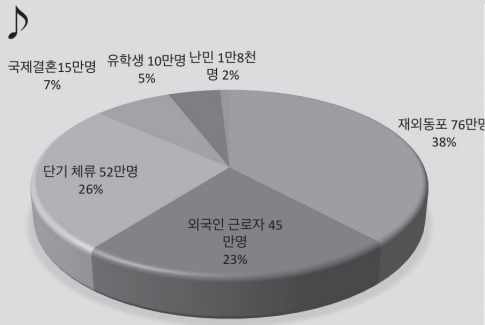
나그네 시절을 기억함 | 신명기 10:19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주민 선교의 필요성

- 국내 거주 이주민 204개국, 200만명 (2016년 6월)
- 국제 결혼 (15만명), 유학생 (10만명), 국내 체류 난민 (1만 8천명)



(10년마다 2.5배로 증가 2025년에는 4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성경 속 이주민들



이주민 선교 신학

“하나님은 나그네의 보호자이시다.”

시편 146:9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출애굽기 23:9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
정을 아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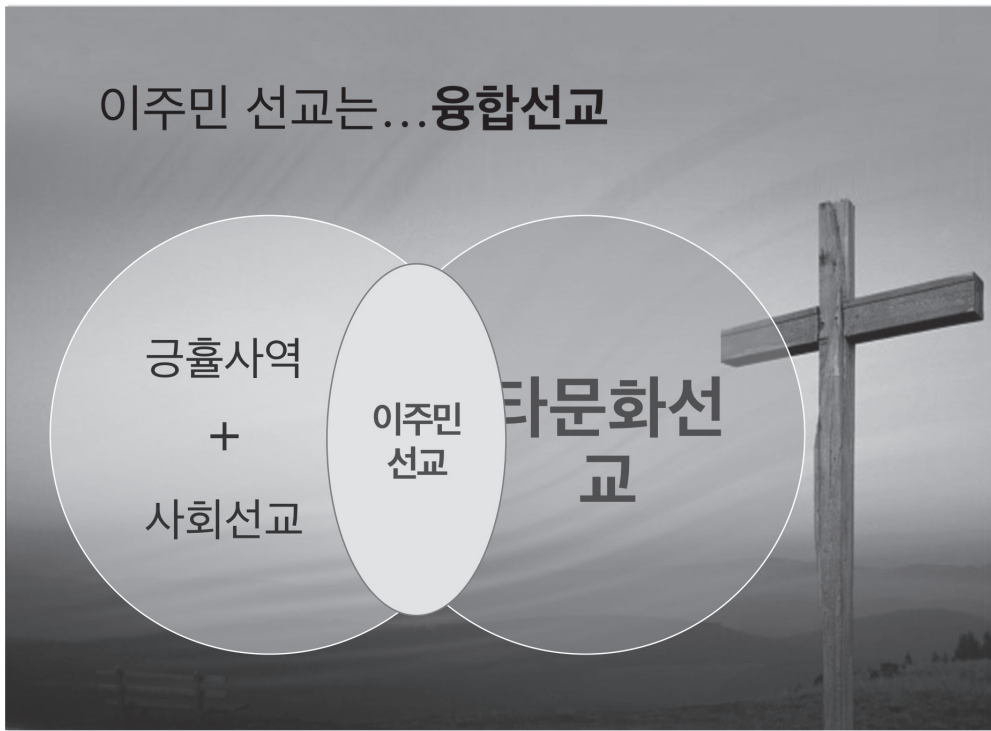
신명기 10:19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스가랴 8:22~23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대한민국)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임마누엘)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주민 선교는... 융합선교



“누가복음 4:18~19”의 실현

공흥사역
(디아코니아)

사회선교
(+케리그마)

하나님 나라
(+코이노니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눅 4: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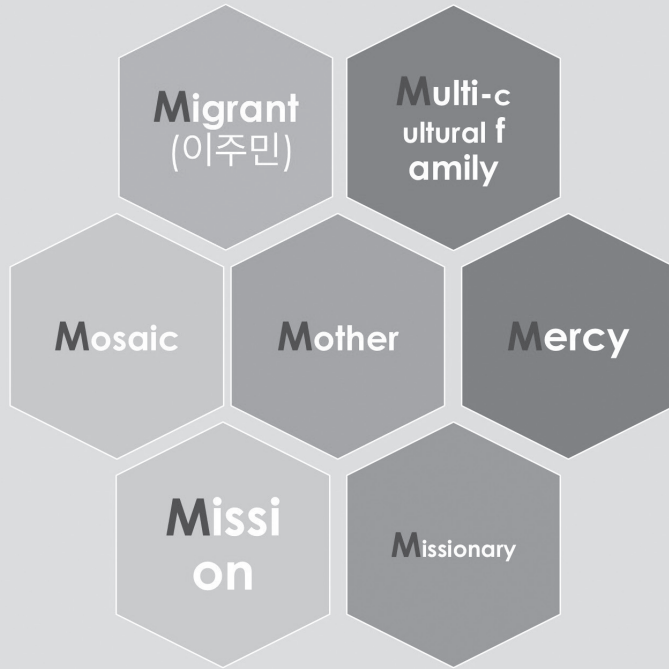
온누리교회의 이주민 선교

Onnuri M mission (since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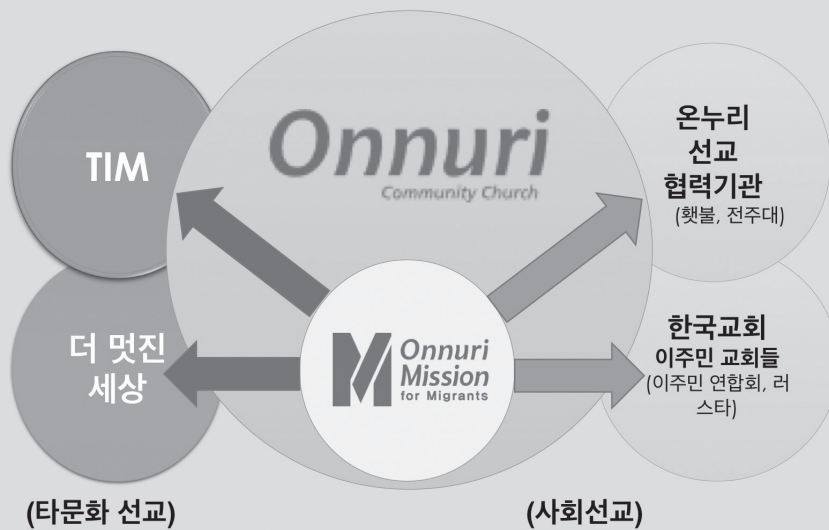
M 이란?

- 온누리M미션은 2000선교 산하의 이주민 사역본부
- 온누리M센터는 온누리M미션 산하의 지역별 이주민 선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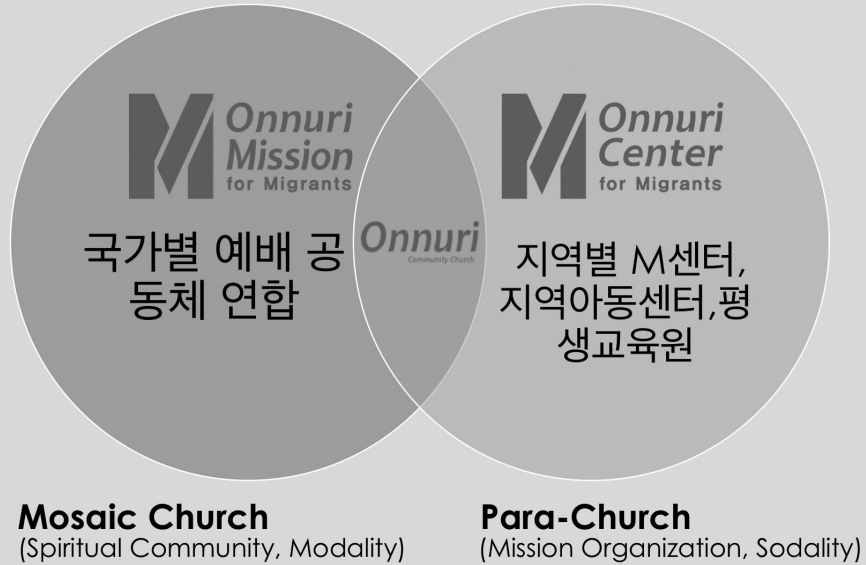


1. M – IDENTITY

온누리 M 미션은... 온누리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선교 단체



2. M – Structure



3. M – Vision



M미션의 열매들 = 28 + 500 + 10,000

역파송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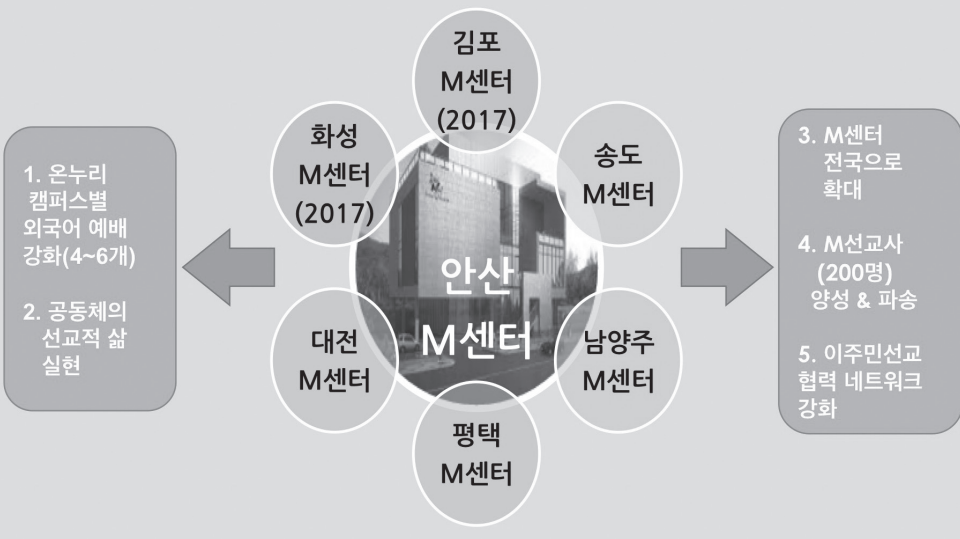
28명의 역파송 선교사가
13개국으로 TIM과 '더멋진 세상'
을 통해 역파송됨.

세례 및 역파송 외국인 성도

25개국 500명의 외국인 성도가
세례를 받았고,
30여개국 10,000여명의 외국인
성도들이 본국으로 귀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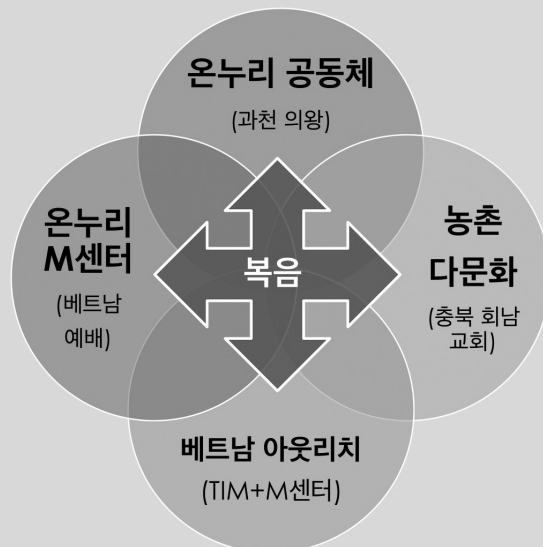
	파송 지역	파송 선교사	사역 내용	파송일
1	네팔	K.B. 라이 목사	교회 개척(해브론교회)	1999. 11
2	파키스탄	길 목사	교회 개척 사역	1999. 4
3	파키스탄	매불 목사	고아원 사역	1999. 4
4	미얀마	야양 목사	고아원 사역, 학원	1999. 4
5	미얀마	똘제우 목사	교회 개척, 디발족 사역	2003. 2
6	인도	A(아짓) 목사	교회개척, 고아원, 학원사역	2005. 3
7	네팔	필립 목사	교회개척	2005. 6
8	스리랑카	사시 목사	교회개척, 제자양육	2007. 9
9	이집트	A(티모티) 목사	교회개척, NGO사역	2008. 7
10	몽골	가나 목사	교회개척	2009. 1
11	인도	M(마크) 목사	교회개척, 신학교	2009. 1
12	이라크	M(말라드)전도사	교회개척, 제자양육	2009. 1
13	이라크	히바 사모	목사님 사모	2009. 1
14	이라크	B(바사르) 전도사	교회개척, 제자양육	2009.12.24
15	인도	A(아보노) 목사	청년사역	2009. 1
16	베트남	푸형 목사	리더십 양성, 성경학교	2009. 1
17	파키스탄	R(라픽) 목사	교회개척	2010. 1
18	스리랑카	사낏 목사	교회개척, 제자양육	2010. 4
19	네팔	조경근 목사	교회 개척, ANVC비전센터	2011. 1
20	부탄	던 라즈 목사	교회개척, 제자양육	2011.01.26
21	네팔	티모티 목사	신학교 사역	2012. 1
22	인도	티유 전도사	실용지역 교회 개척, 제자양육	2012. 1
23	방글라데시	유충선 목사	현재 언어 과정	2013. 1
24	몽골	첸대 전도사	교회사역, 찬양사역	2016. 3
25	몽골	아치트 전도사	교회 사역	2016. 3
26	르완다	김연경 선교사	더 멋진 세상 (NGO)	2016. 2
27	몽골	첸드마 목사	교회개척	2016. 7
28	세네갈	지영아 선교사	더 멋진 세상 (NGO)	2016. 8

온누리 M센터 6개 거점 구축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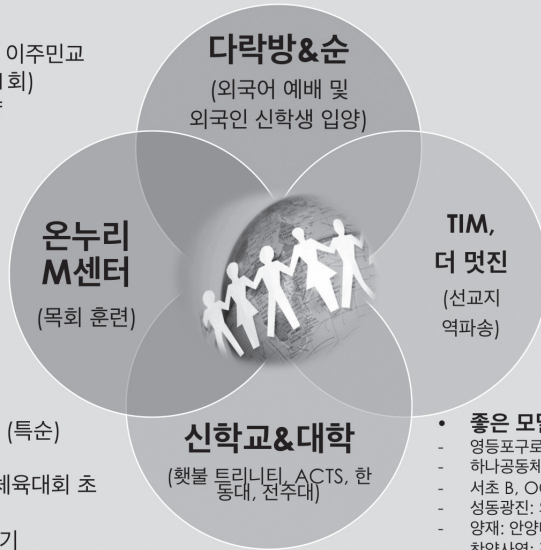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주민 선교

1) 이주민 융합 선교 (공동체 차원)



2) 1 다락방 + 1 사역 (다락방 & 순 차원)

- **다락방 & 순모임**
- 1개 외국어 예배 / 이주민교회 섬김 (월/분기 1회)
- 1명의 신학생 입양
- 다문화 가정 입양



- **사역 내용**
- 함께 예배 드리기 (특순)
- 함께 식사하기
- 명절, 야외예배, 체육대회 초대하기
- 아웃리치 함께 가기

- **좋은 모델**
- 영등포구로: 이라크 신학생 입양
- 하나공동체: 몽골 설날 수련회
- 서초 B, OCC, 가정사역: 설거지 봉사
- 성동광진: 의료봉사
- 양재: 안양대 여학당 유학생 섬김
- 찬양사역: 경기북부 이주민 음악회

참여 가능한
이주민 사역들



한글 학교
*각 예배별 / TOPIK 반 교사

서빙고 한글학교



**다문화 평생
교육원
문화 교실**
*각 강좌별 교사 필요함.





의료 진료
 주일 오후
 (성동광진, 수원, 양재 CMN)



설날 국가별 수련회 (2017, 몽골수련회 + 하나 공동체)



해외 심방 아웃리치 (M센터 출신)

- 네팔 헤브론 교회



온누리M미션 네팔예배 개척



스리랑카 심방 아웃리치



귀국형제들 모임

누완

딜립목사 가
정교회



국가별 맞춤 전도 집회



2016년 12월 네 팔
 2017년 1월 몽 골
 5월 미안마
 9월 필리핀
 11월 중 국



안산 M센터 온누리 지역 아동 센터 (교사, 자원봉사 / 양재 여성사역)





다문화 평생 교육
원
문화 교원



Yeoni Nail Art



서빙고 한글학교

한글 학교
*각 예매별 / TOPIK 반



국가별 한글학교



안산 TOPIK 준비반

토요 문화 강좌 (12주 과정)



온누리 M 센터
 부산 토요문화강좌 2017년 봄학기 학생 모집
Onnuri M Center
Weekend Cultural Workshop Spring 2017
 Registrations are now open!

수업과목 Subjects

피아노 Piano	기타 Guitar	바둑 Baduk	꽃꽂이 Flower Arrangement
엑셀 Excel	한국요리 Korean Cooking	탁구 Table Tennis	

대상자 Who 외국인 유학생, 이주민, 다문화 가정
 Foreign students, Immigrants, Multicultural citizens

수강시간 When 매주 토요일 오후 Every Saturday
 1교시(3:30~4:50pm) / 2교시(5:20~6:40pm)
 *간식 및 저녁 식사 제공 / We provide snacks and dinner
 *공간에 한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 P.S. Only on the follow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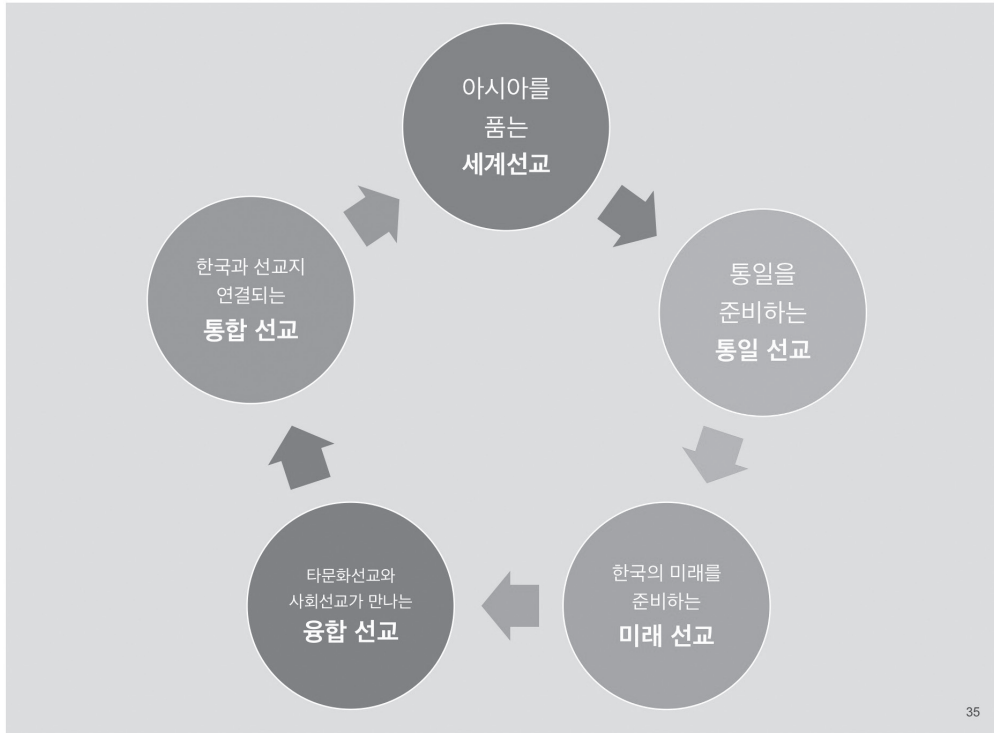
기간 Course 2017.3.25 ~ 2017.6.10
 (12주 과정 / 12 weeks)

장소 Where 온누리 M 센터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곡동 950-2)
 Onnuri M Center (8 Sincheon-ro, Danwon-Gu, Ansan-si)

신청방법 To Apply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
 Complete the registration form & submit to staff

Questions? 김재현 팀장 010-2724-4563
 양옥진 전도사 010-3937-3927

이주민 선교는...





고령사회와 시니어 사역

강사 : 노치형 목사

잠언 3:1-4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4: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1. 2026년을 앞에 두고 : 2018년 고령사회 진입,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2. 외로운 미래에 대한 자발적 고민 : “은빛날개”

※ 은빛날개 - 정의 및 목표

은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개인이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고(self-reflection)
자신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고 아직 사용되지 못한 영, 몸의 자원들을 개발하여
(self-development)

빛이 필요한 곳, 국내 사회선교 지역과 해외 선교지역을 찾아가 복음의 빛을 비추
는 삶이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
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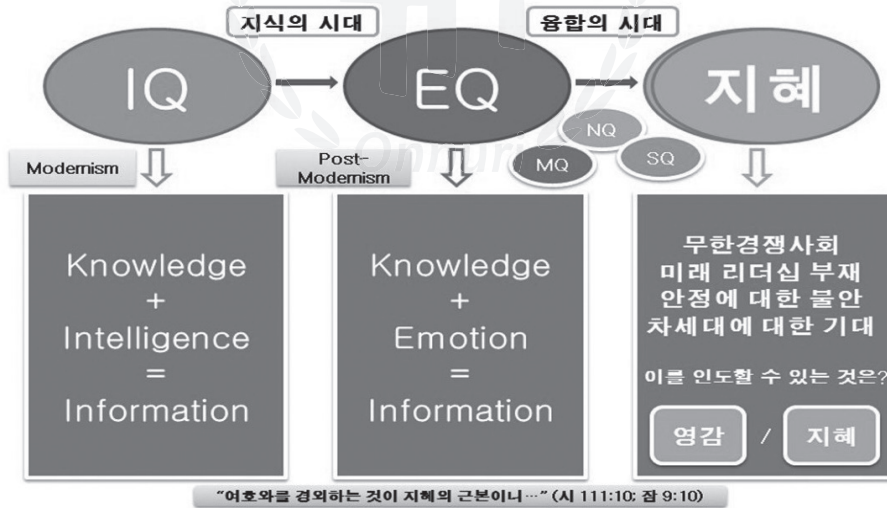
개인, 나아가 친구관계를 이루는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어(friendship) 확장된 삶의
영역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화평을 이루며, 거짓과 싸워 이기는 선한 영향력을 끼
치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은퇴 이후의 삶

(1) 핵심가치 & 목표

- 자기성찰 Self-Reflection
자신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되돌아 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 자기개발 Self - Development
자신의 인생 속에 가장 자신있게 사용할 수 있는 분야들을 발견한다.
- 친구관계 Friendship
5자신의 인생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자리와 새로운 친구관계를 세워간다.

(2) '시대 흐름'의 이해가 필요함 : 영감 → 지혜



4. 대한민국 초고령 사회의 사람과 시대 흐름의 이해

- 은퇴 이후의 삶 : 키워드의 변화



- 은퇴 이후의 삶 : 4가지 명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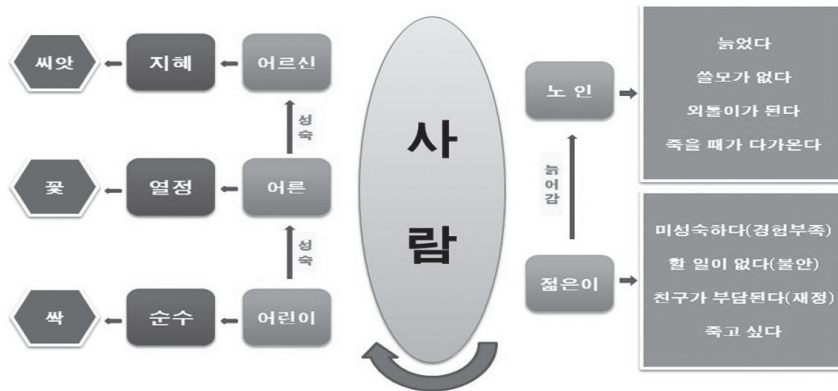
1. '늙음'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성숙'이라는 단어를 취하라!

2. '자신의 과거'가
'미래의 밑거름'임을 기억하라!

3. '어르신 전문 네트워크'를 통해
'후배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라!

4. '노년의 여유'를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채워라!

- 사람 이해의 변화가 필요함 : 늙어감 → 성숙



- 은퇴 이후의 삶 : 이제 시작입니다!

1. 큐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 말씀 안에서 “자아성찰 - 자아개발 - 친구관계”

2. 나를 성찰하는 삶은 소중합니다!

: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인생 속의 ‘만남 &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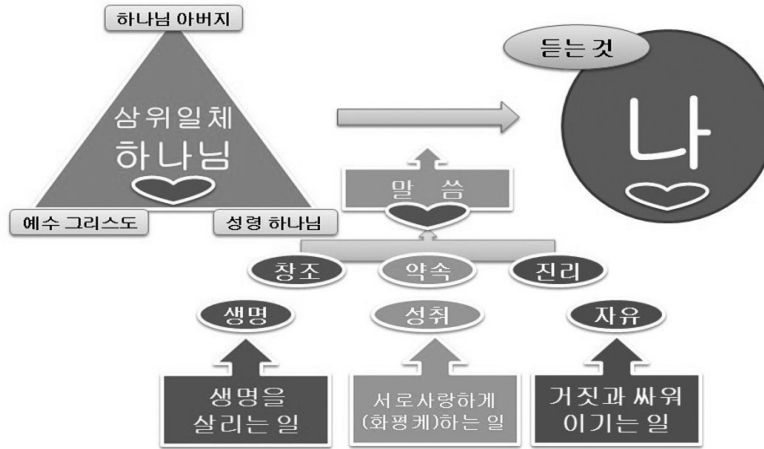
3. 나를 개발하는 삶은 꼭 필요합니다!

: 소극적 자아개발이 아닌 적극적인 ‘자아개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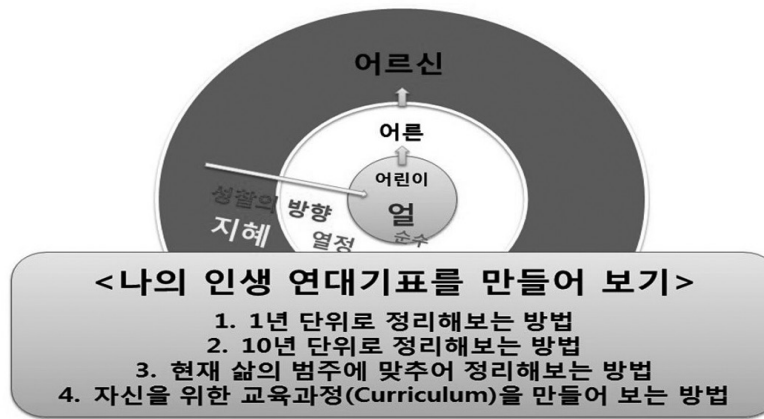
4. 나의 확장인 ‘친구관계’가 중요합니다!

: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열쇠는 ‘친구관계’!

- 큐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 나를 성찰하는 삶은 소중한입니다!



- 나를 개발하는 삶은 꼭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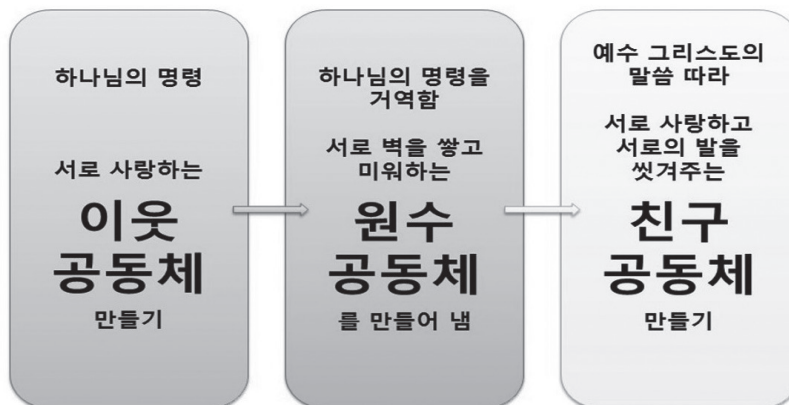


5. 인생의 마지막 열쇠 : “친구 관계”(Friendship)

- 나의 확장인 ‘친구 관계’가 중요합니다!



-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열쇠는 ‘친구 관계’!



6. 은퇴 이후의 삶 : “은빛 날개”

- 은퇴 이후의 삶 - “은퇴 이후에도 빛을 비추는 날개를 펼쳐 날아 오르는 삶”



7. 인생의 남은 시간 :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채워가는 것”

강의에 기쁘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샬롬&'은빛 날개' in Jesus!



6차 장로아카데미

수료예배 및 수료식: 감사와 친교

- 이재훈 목사 -



